



모교 관악캠퍼스 - 가을이 영근다...



모교 공과대학 제1공학관(301동) 15층에서 내려다본, 가을웃으로 갈아입은 관악캠퍼스

관악출추

화제가 되고 있는 마이클 샌들 교수의 하버드대 강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청강할 수 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캠퍼스 내에서만 유통되던 교육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유수대학들은 교육과정에서 e-러닝을 중시하고 일반인에게 교육 자

콘텐츠들을 쏟아내고 있다.

모교도 지난 5월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 모교의 강의 콘텐츠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서울대 온라인 지식 나눔'(SNUi)서비스를 9월 13일부터 시작했다. 온라인 동영상으로 진행되는 강좌는 인문, 사회, 경영, 자연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양강좌로 구성돼 있다. 모교는 이 사업을 통해 서울대 지식나눔을 통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점진적으로 자격증강좌, 기획강좌, 석학초청강좌, 전문강좌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 IPTV, 스마트폰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며 미래 교육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미래 교육에 대비하는 의미 있는 출발

료를 공개하는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운동을 강화하고 있다.

2002년 유네스코포럼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자원을 함께 개발하자는 선언이 있었고 이에 따라 OER운동이 시작됐다. OER의 기원은 MIT가 대학내 강좌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든 Open Course Ware(OCW)프로젝트라 볼 수 있으며, 미국의 코넬대학 등이 독자적으로 대학의 교육자원을 공개해 부가 가치를 창출한 예에서부터 OCW, AcademicEarth.org 등의 OER까지 많은 대학들이 양질의

현재 40대 이상의 인터넷 사용인구가 9백80만명에 육박했고 50대 이상의 사용자도 4백40만명에 이른다. 또한 40대 이상 국민의 다수가 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대부분 시간부족이나 비용 문제로 인해 재교육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따라서 모교의 지식나눔 사이트에 대한 수요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재학생은 물론이고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서울대 교육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모교의 지식나눔(SNUi) 사업은 늦었지만, 미래 교육에 대비하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 할 수 있겠다. (安國正는설위원)

모교 開學 연도 1895년으로 결정

“종합대 시작 1946년은 開校
...대학교육의 시작은 開學”

본회(회장 林光洙)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온 모교 개교 원년 재조정이 결실을 맺어, 지난 10월 7일 모교가 1895년을 새로운 '개학 연도'로 지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현 개교 원년인 1946년을 통합 전의 고등교육기관의 시원인 1895년으로 앞당기자는 본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종합대학으로 모교를 설립한 '開校'와, 근대 학문과 대학교육을 시작한 '開學'의 개념을 분리한 것이다.

모교 최종 의결기구인 평의원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서울대는 종합대학교로 1946년(10월 15일) 개교했지만, 학문 분야에 따라 대학교육의 연원이 1895년에 시작됐으므로 1895년을 '개학 연도'로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따라서 서울대의 학문과 교육의 역사를 115년(1895~2010년)으로 말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본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개교 원년 조정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느리나무광장

국무총리나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잇단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며 느끼는 소회는 개인마다 다를 터이다. 10년 전 청문회가 처음 도입될 때만 해도 ‘통과의례’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예단도 있었지만, 해를 거듭하며 그 ‘위력’이 더해가는 것 같다.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의 아리송했던 행적이 모조리 까발려지거나 도덕성 시비가 일어 낙마하는 사태가 속출하면서 대상자는 물론 임명권자로서도 가장 골고롭고 신경 쓰이는 절차가 됐다.

총리만 해도 2002년 張 裳, 張大煥후보자에 이어, 최근 金台鎬후보자가 망신만 당한 채 물러났고, 이런저런 비리나 의혹이 불거져 중도하차한 장관급들은 일일이 헤아리기 어렵다.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를 통과했다라도 검증과정에서 떼뗄지 못한 과거가 백일하에 드러나 그동안 멋지게 포장됐던 인생 역정이 초라하게 추락해 옆에서 보는 이조차 허망하고 안쓰러울 정도다.

그래서인지 일각에서 현행 제도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청문회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정책능력 검증을 해

야 할 청문회 자리가 도덕성 검증을 빚낸 흠집내기 인신공격의 장이 돼버렸다, 그런 식으로 탈탈 털면 남아남 사람 있겠느냐, 사소한 과오를 물고 늘어지는 의원들은 얼마나 깨끗하냐”는 주장들이 그것이다. 끼리끼리 사석에서는, 특히 후보군에 근접했다고 여겨지거나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 이른바 힘쓰는 인사들일수록 이런 인식이 팽배한 것 같다. 金台鎬후보자 낙마 후 유력한 총리감들이 지명을 고사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언론보도에 편승해, 이런 주장들은 마치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의연히 맞서는 냉정하고 용기 있는 표명인양 치장되기도 한다.

청문회 斷想

李 元 燮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본보 논설위원



그러나 이는 일반 민심과 크게 동떨어진 것이다.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또다시 나서는지 정말로 ‘강심장’이다, 혹시나 했지만 이젠 환상을 접었다”는 극단적 실망까지 감추려 하지 않는다. 나만 손해 본 것 같은 박탈감이 너무 큰 탓이리라. 마침 터져 나온 외교부장관 딸 특혜 채용은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일부 특권층의 몰염치와 무한 탐욕, 그리고 오만함. 졸업 후 취업 걱정에 전전긍긍하는 학생들을 자주 접하기에 ‘반직’이 버젓이 행해지는 풍토에 대한 젊은이들의 분노와 절망감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된다.

무릇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다. 정착하기 전까지는 미흡한 점이 두드러져 보일 수 있다. 문제는 본질이다. 일부 눈살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있더라도 단점을 과장해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 한 제도가 자리 잡으면, 설사 그 제도를 만든 사람일지라도 그에 얽매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족쇄’가 된다. 일부 희생이나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엄격한, 때론 혹독한 검증이 지속돼야 한다. 공직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반칙하지 않고 스스로 몸가짐을 살피는 풍토를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공정 사회’를 지향한다면 힘들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고개다.

10월 17일 일요일에 만나요 홈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대회

제31회 홈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대회를 오는 10월 17일 일요일에 거행합니다. 모교를 방문해 교내를 탐방(미술관·박물관·규장각)하거나 관악산을 등반하고 교내 버들골에서 친목과 결속을 다지는 행사에 꼭 참석하셔서 그동안 잊고 지내던 선후배·동기들과 좋은 만남과 추억의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일 시 : 2010년 10월 17일(일요일) 오전 9시

▲집합장소 :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

▲대회장소 : 모교 노천강당 앞 버들골
(안양 관악수목원에서 변경)

▲참가대상 : 동문 및 동문 가족

▲참가비용 : 없음

▲제공물품 : 도시락, 식음료, 우동, 기념품
(동문 음악가 CD) 등

▲경 품 : 풍성한 선물 추첨
(林光洙회장 승용차 제공)

▲문의전화 : 02)702-2233

서울대총동창회 회장 林 光 洙
서울 대학교 총장 吳 然 天

동문칼럼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다. 국치 1백년을 맞으면서도 건국기념일이 언제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도출해내지 못했을 정도로 여론도 분열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같은 민족이고 비슷한 자연적, 국제환경적 여건에 놓여 있던 남과 북이 삶의 질로 볼 때 비교가 안될 정도로 차이 나는 나라로 변화했다는 점이다.

무엇이 그러한 차이를 만들었을까?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의 열쇠는 두 나라의 정치 체제의 성격 차이에서 밖에는 찾을 수 없다. 남쪽은 1948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독립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개발해 발휘하도록 하는 나라가 됐던 반면 북한의 체제는 소수의 지도층을 위해 다수의 인민이 억압당하는 체제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은 독립과 동시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한국 정부선포로 이어지는 전 과정으로서의 대한민국 건국은 성공한 혁명의 조건을 여러 겹으로 갖추고 있다.

첫째, 우리는 일제 식민지 지배 체제뿐 아니라 미군정 체제에서도 벗어나 독립을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주권국가가 됐다. 둘째, 왕정 치하의 ‘백성’이나 일제하의 ‘신민’으로 살던 경험밖에 없던 우리는 하루 사이 ‘국민’으로 승격했을 뿐 아니라 남녀 모두가 자유롭게 평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진 시민이 됐다. 셋째, 이 공화국이 채택한 이상과 이념은 공산주의나 군국주의적 집산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인격과 재산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였다.



李 仁 浩

(사학55입)

모교 서양사학과

명예교수

정치적으로 볼 때 1948년 이후의 한국 사회는 이미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우리의 건국혁명도 다른 나라 혁명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구한말의 여러 형태의 구국 운동,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국내외 독립 투쟁 등 긴 준비기간을 거쳤고 혁명 이상이 현실로 구현되기까지는 건국 후로도 많은 시간과 때로는 폭력까지 수반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6·25전쟁, 4·19, 5·16, 5·18 등 심각한 시련

대한민국 건국은 혁명이었다

말하던 이른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했던 것이다.

혁명의 제일 요건은 현 체제에 대한 불만과 부정이 대안 이데올로기를 낳고 권력 주체와 권력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다. 하지만 혁명의 목적은 낡은 껍질을 벗는 것뿐 아니라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있다. 구체제를 폭력으로 파괴해도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지 못하면 그 혁명은 실패하는 것이며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혁명이 성공한 혁명으로 평가받는데 비해 러시아 혁명과 그 이데올로기가 실패로 평가받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런 척도로 볼 때 1945년 해방에서 1948년 대

과 곡절, 정권교체와 부분적 개헌을 거치면서도 건국헌법의 이상과 정신이 자체로서 부정된 적은 없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해방을 기조로 하는 헌법체제는 국민적 총 역량의 비약적 증가로 그 위력을 발휘했다.

건국혁명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남한으로 제한됐다는 사실은 건국의 환희와 그 혁명적 의미마저 잊게 할 만큼 뼈아픈 일이었다. 그러나 적용범위가 제한됐다고 해서 그것이 가지는 긍정적, 혁명적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함을 이 나라의 발전상을 눈앞에 보는 사람은 부정하지 못 할 것이다. 남은 과제는 어떻게 하면 북녘의 동포들도 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이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林 光 洙

편집인 孫 一 根

인쇄인 朴 薦 壽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李啓聖, 金鎮國, 崔英勳, 吳在錫, 李容式, 李先敏, 李相起, 蔡耕王, 許文明, 金永燮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金南柱, 邊榮顯, 玄智愛 광고부장 金千鶴



“즐겁고 행복하게 라운드한 분이 오늘의 우승자”

동문 골프대회서 法大 단체 우승 메달리스트에 河光龍·金貞子동문



林光洙회장은 대회사에서 “좋은 생각이 좋은 샷을 만들고, 골프와 인생은 닮은 꼴” 이라고 말했다.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9월 14일 인천시 스카이72골프클럽 하늘코스에서 제6회 서울대 동문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각 단과대학(원)과 특별과정, 직능 및 지방지부동창회에서 참가한 동문 1백37명이 샷건방식으로 18홀을 돌았다.

순위를 가리는 대표팀 단체전과 개인전은 스트로크방식, 남녀 친선팀은 신페리오방식으로 진행됐다.

동문 골프대회는 각 동창회의 폭발적인 관심과 협조로 매년 여러 학과와 과정을 졸업한 동문들이 고무 참가해 동문들의 친목을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며 시종일관 멋진 플레이와 선후배간 정답을 나누는 모습이 연출됐다.

林光洙회장은 대회사에서 “금년 여름은 유난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고, 지구촌 평균기온도 관측이 시작된 1880년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요즘은 태풍 때문에 풍수해가 많이 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폭염과 태풍을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라운드를 즐기는 동문들을 보니 반갑고 기쁘다”고 덧붙였다.

또 ‘골프는 멘탈게임(Mental Game)’이며, 좋은 생각이 좋은 샷

을 만들고, 골프와 인생은 닮은 꼴’이라며 “내가 제일 즐거웠고, 행복한 라운드를 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오늘의 우승자”라고 말했다.

이어 모교 李基俊 前총장은 “골프를 통해 훌륭한 동문들을 많이 만나 감회가 새롭고, 함께 운동을 하면서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더 젊어지시고 건강해지는 비결이 골프에 있다는 것을 배웠다”며 “서울대의 발전과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건배를 제의했다.

朴榮敏(체육교육62-66)경기위원장의 보고에 이어진 본상 시상에서 작년 대회에서 3위에 머물렀던 법과대학동창회팀이 함께 2백31타로 대표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해 우승기와 기념품을 받았다.

단체전 경기결과는 지난해에 우승했던 치과대학동창회팀이 2백32타로 준우승,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팀이 2백34타로 3위에 올랐다.

남녀 메달리스트에 71타를 기록한 河光龍(법학76-80)동문과 81타를 친 金貞子(HPM 20기)동문이 선정됐다.

대표팀 개인전 우승은 72타를 기록한 金壯珉(AMP 69기)동문이 차지했으며, 남녀 친선팀에서는 元賢守(화학74-78)동문과 李順全(체육교육66-70)동문이 각

각 1위에 올랐다.

張在憲(HPM 15기)동문이 2백70야드, 丘香玉(AIP 37기)동문이 2백45야드를 쳐 남녀 롱기스트를 차지했다.

남자 니어리스트상은 李世榮(약학57-61)동문, 여자 니어리스트상은 南婉先(사법85-89)동문에 게 돌아갔다.

남녀 감투상은 金在浩(생물교육53-57)동문과 朴誠愛(간호66-70)동문, 남녀 행운상은 吳東熙(건축78-82)동문과 許鈺卿(AIP 42기)동문이 차지했다.

이날 흥인원을 기록할 경우 대림산업 李竣鎔(경제56-60 본회 부회장) 명예회장이 협찬한 스쿠터 1대를 부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으나 행운의 흥인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참가자들은 골프모자를 비롯한 각종 골프용품과 썬크림, 식선초 등을 기념품으로 받았으며 모교 발전기금에서 즉석 기념사진을 제공했다.

이밖에도 참가자들은 만찬 후 추첨을 통해 건강 검진권, 공기청정기, 디지털 카메라, 골프용품, 호텔 식사권, 건강식품, 디지털 피아노와 클래식 기타 등 푸짐한 경품을 받았다.



대표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법과대학동창회팀



대표팀 개인우승 金壯珉(右) 동문



친선팀 남자우승 元賢守(右) 동문



친선팀 여자우승 李順全(右) 동문

삼익약기 金鍾燮(사회사업66-70 본회 부회장)회장이 제공한 디지털 피아노는 朴誠愛(간호66-70)동문이 받았으며, 대림산업 李竣鎔명예회장이 제공한 스쿠터는 朴榮植(AIP 28기)동문이 당첨됐다. (榮) (협찬자 명단 4면 참조)

각 부문별 수상자

◆대표팀

단체전 △우승 : 법과대학동창회 禹泳華(법학62-66)·金鉉翼(법학73-80)·河光龍(법학76-80)동문 △2위 : 치과대학동창회 羅炳宣(치의학69-76)·姜泰聲(치의학71-77)·林鍾昊(치의학82-88)동문 △3위 : AMP동창회 金壯珉(AMP 69기)·柳來景(AMP 69기)·任爽嫻(AMP 69기)동문

개인전 △우승 : 金壯珉(AMP 69기)동문 △2위 : 宋亮鉉(HPM 11기)동문 △3위 : 金亨中(GLP 17기)동문 △4위 : 林鍾昊(치의학82-88)동문 △5위 : 金龍太(GLP 17기)동문

◆친선팀

△우승 : 元賢守(화학74-78)·李順全(체육교육66-70)동문 △2위 : 李鍾大(GLP 16기)·李吉女(의학51-57)동문 △3위 : 李在源(상학55-59)·洪在希(GLP 20기)동문 △4위 : 金鍾錫(AMPFRI 23기)·成善玉(AIP 28기)동문 △5위 : 金성훈(GLP 17기)·南婉先(사법85-89)동문 ▲메달리스트 : 河光龍(법학76-80)·金貞子(HPM 20기)동문 ▲롱기스트 : 張在憲(HPM 15기)·丘香玉(AIP 37기)동문 ▲니어리스트 : 李世榮(약학57-61)·南婉先(사법85-89)동문 ▲감투상 : 金在浩(생물교육53-57)·朴誠愛(간호66-70)동문 ▲행운상 : 吳東熙(건축78-82)·許鈺卿(AIP 42기)동문

가을에 여무는 각 단과대학동창회 장학금

농생대동창회

재학생 43명에 장학금 전달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鄭潤煥)는 지난 9월 2일 모교 관악캠퍼스 농생대 교수회의실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동창회 장학재단인 상록문화재단(이사장 韓仁圭)을 비롯해

목운문화재단(이사장 韓仁圭)과 농생대 교육연구재단 일성특지장학회(출연자 鄭潤煥)를 통해 43명의 재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상록문화재단은 지난해 12월 설립됐으며, 올해 金東岩(축산52-56)·鄭昌柱(농공53-57)·金重經(농경제54-58)·宋鍾益(농경제55-59)·金成勳(농경제58-63)·李銀鍾(농생물59-63)·李賢秀(농화학60-64)·金昞東(농학62-66)·柳寬熙(농공63-67)·金基鏞(축산64-68)·金熙國(원예72-76)·河鍾圭(대학원77졸) 등문과 56학번·76학번 동기회에서 4천7백여 만원을 출연했다.



수의대동창회

학부·대학원생 지원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角模)는 지난 9월 7일 모교 관악캠퍼스 수의대에서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학부 및 대학원생 3명에게 1천만원의 전달했다.

이날 모임에는 李角模회장, 李文漢수석부회장, 姜寅求·白忠基

부회장, 朴鍾鳴감사, 金大湧총무, 장학재단 鄭英彩·金善中이사, 모교 수의대 權五鏡학장, 朴龍浩·金載弘·尹熙貞·李柄千교수 등이 참석해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동창회는 지난 1997년 장학재단을 설립해 지금까지 90명의 재학생에게 2억원을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李角模회장이 모교 발전기금에 출연한 기금을 통해 李角模특지장학금이 추가 지급됐다.

의대동창회

4명에 2천만원 지급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朴容晔)는 지난 9월 28일 모교 연건캠퍼스 함춘회관에서 ‘후배사랑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동창회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면학에 정진하는 저학년 재학생 4명에게 각 5백만원씩 2천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장학금 수여식 후 열린 동기회장·지회장 및 상임임원 연석회의에서 ‘함춘의학상’ 명칭을 ‘함춘학술상’으로 변경하고, 수상자수를 기존 ‘3명’에서 ‘3명 이내’로 개정했다. 또 동아제약 姜信浩회장의 후원으로 ‘함춘동아의학상’을 제정했다.

동문작품 지상전시회

崔恩媛 作



‘나팔꽃’, 수채화, 25x30cm, 2010

〈작가약력〉

- ▲60~64년 모교 응용미술학과 졸업
- ▲63년 국전 도자기 부문 입선
- ▲06년 한강미술대전 입선
- ▲06년 서울여성미술대전 입선

- ▲06년 누드공모대전 입선
- ▲07년 그룹전 ‘그림 에세이 서울이야기’ 한국회화의 위상전
- ▲09년 Korea-Japan Art Exhibition 그룹전
- ▲09~10년 호울회전
- ▲수채화가

함춘동아의학상은 1명에게 전달되며 상금은 3천만원. 시상식은 오는 12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되는 ‘함춘송년의 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南)

제6회 동문 골프대회에 협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姜信浩(의학46-52)분회 고문 : 음료수 1백60개
- 李吉女(의학51-57)분회 부회장 : 길병원 건강검진권 10매
- 李竣鎔(경제56-60)분회 부회장 : 스쿠터 1대
- 孫京植(법학57-61)분회 부회장 : 스펀 선물세트 12개
- 孫吉丞(상학59-63)분회 부회장 : 위커히호텔 식사권 2인용 5매
- 趙炳祐(섬유공학59-64)분회 부회장 : 골프모자 1백70개
- 李潤雨(전자공학65-69)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 디지털 카메라 5대·디지털 액자 5대
- 金鍾燮(사회사업66-70)분회 부회장 : 디지털 피아노 1대·클래식 기타 3대
- 金光石(AMP 38기)잡존 회장 : 썬크림 1백50개
- 姜普英(HPM 1기)안동병원 이사장 : 건강검진권 2인용 2매
- 張在憲(HPM 15기)동인당약품 대표 : 물없는 웰빙가습기 5대
- 申一汕(AMPFRI 14기)나노카보나 대표 : 원적외선 구이판 10개
- 尹煥植(AMPFRI 14기)대명종합식품 회장 : 식선초 1백60개
- 辛東烈(GLP 3기)성문전자 회장 : 쌀(20kg) 20포
- 姜德壽(GLP 8기)STX그룹 회장 : 드라이버 2대·퍼터 2대
- 梁正武(GLP 15기)아이랜드스필드 회장 : 골프백 1세트·금장 드라이버 1대
- 문경안 (주)볼빅 대표 : 골프백 1세트·골프공 15더즌

제13회 ‘관악대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여러 이웃 동문에게도 널리 알려 많은 후보자의 추천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 상 부 문
참 여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 력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유무형의 헌신과 봉사로 기여한 동문·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 광 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1. 시상 부문 : 동창회 지표인 ‘참여’ ‘협력’ ‘영광’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천서 접수 : 1) 접수마감 : 2011년 1월 31일
2) 접 수 처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217호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전화 : 702-2233·팩스 : 703-0755)
4. 시상 시기 :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2011년 3월 18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林 光 洙·관악대상 운영위원장 孫 一 根

공대 여성동문회

정기총회 겸 홈커밍데이 가져

공과대학 여성동문회(회장 宋正姬)는 지난 9월 11일 모교 관악캠퍼스 두레미담에서 정기총회 겸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朴順子(화학공학50-54)·李信玉(건축52-56)·池 淳(건축54-58)·李永熙(건축57-61)동문을 비롯해 4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해 후배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현재 공대 여성동문회(womeneng.mysnu.net)는 1천2백여 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다.

회장은 서울시 정보화기획단 宋正姬(전자공학77-81)단장이며, 수석부회장은 조선대 李禎娥(컴퓨터공학78-82)교수, 부회장은 모교 田華淑(컴퓨터공학79-83)교수, 서울시립대 李善英(건축81-85)교수, 이화여대 林惠淑(제어계측82-86)교수, 총무는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吳世賢



(컴퓨터공학83-87)이사가 맡고 있다.

각 학과 간사로는 李英玉(기계공학83-87)·鄭有珍(컴퓨터공학85-89)·許銀榮(건축86-90)·朴芝映(원자핵공학87-91)·金旼宣(섬유고분자공학89-93)·柳受庭(제어계측89-93)·金兌宣(화학공

학93-97)동문이 수고하고 있다.

동문회는 앞으로 네이버(cafe.naver.com/womeneng)와 트위터 등을 통한 인터넷 교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으며, 회원 DB 업데이트, 역대 장학생간 네트워크 지원, 기금 확충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ACAD동창회

金泰榮장관 조찬 강연

국가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廷益)는 지난 9월 30일 서울 용산동 국방회관에서 국방부 金泰榮장관을 초청해 ‘주요 국방 현안 및 정책’을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李廷益회장, 朴寬用고문, 모교 행정대학원 崔鍾元원장, 任道彬부원장, 金秉燮주임교수를 비롯해 2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지난 1972년 설립된 국가정책과정 회원 수는 2천4백여 명에 이르고 있다.

흔을화

30주년 기념 전시회

미대 출신 여성 동문들로 구성된 흔을화(회장 朴淑姬)는 지난 9월 15~21일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제33회 전시회를 개최했다.

창립 30주년을 기념한 이번 전시회에는 鄭晶姬(조소49-52)·沈竹子(회화49-55)·李信子(응용미술50-55)·李仁實(회화52-56)·全明子(회화53-57)·金時用(응용미술56-60)·金載姬(회화56-60)·金芝烈(회화56-60)·鄭善嬋(응용미술56-60)·玄淑子(회화56-60)·姜瑛秀(회화57-61)·沈次順(조소57-61)·朴淑姬(응용미술58-62)·成己婉(회화58-62)·成耆點(회화58-62)·劉可梅(회화58-62)·韓英玉(회화58-62)·姜明洵(미학59-65)·延璟子(응용미술59-63)·趙 允(조소63졸)·鄭貞子(회화60-64)·崔恩媛(응용미술60-64)·洪貞姬(회화60-64)·趙恩慶(회화61-65)동문 등 57명의 회원이 작품을 출품했다.



1980년에 결성된 흔을화는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인도 등 해외에서 매년 작품전을 개최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여왔다. 지

난해에는 중남미 작가들을 초대하는 등 다양한 주제로 전시회를 꾸미며 동문간 예술교류를 촉진시키고 있다.

대구·경북지부

대구대 캠퍼스서 걷기대회 열어

대구·경북지부동창회(회장 崔敬鎮)는 지난 9월 12일 대구대학교 본관 운동장에서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우천임에도 불구하고 崔敬鎮(의학68-74 신과부비뇨기과 원장)회장을 비롯한 많은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해 대구대학교 산책로 코스를 돌며 가을정취를 만끽했다.

참가자들은 2시간 정도 캠퍼스 투어를 한 뒤 대구대학교 본관 스카이라운지에서 오찬을 즐기며 안부 인사와 모교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기동문회

1백80명 모교 방문

전기동문회(회장 張世昌)는 지난 9월 12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1백80여 명의 동문 가

족이 참석한 가운데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張世昌(전기공학65-69)회장을 비롯해 KC코트렐 李達雨(전기공학48-53)회장, 한신에너지 李林澤(전기공학61-65)대표, 서호전기 李相鎬(전기공학66-70)대표, 이엔테크놀로지 李泰植(전기공학78-82)대표, 태형산전 金泰亨(전기공학79-83)대표, 엠엠씨테크놀로지 洪承億(전기공학80-84)대표, 누리텔레콤 尹國元(전기공학81-89)이사, KT 全洪範(전기공학81-85)상무, 텅크웨어 金鎮範(전기공학83-87)대표, C&S 마이크로웨이브 李弘培(전기공학85-89)대표와 37회 동기회 등이 금품을 협찬했다.

전기동문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정기총회와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하며 3천여 명의 동문들이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南)

토목공학과동창회

동문 가족 야구경기 단체 관람

토목공학과동창회(회장 趙景遠)는 지난 8월 24일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야구경기를 단체로 관람했다.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계획한 야구경기 관람은 지난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진행돼 동문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동창회는 매

행사에 선착순으로 50명의 동문에 게 4인 티켓은 물론 간식까지 제공해 동문 가족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티켓은 두산건설 朴錫鎬(토목공학78-85)상무가 지원했다.

李知勳(토목공학86-90)동문은 “모처럼 가족나들이도 하고 선·



후배들도 만나 정말 좋은 시간이 됐다”며 동창회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동창회는 야구경기 관람 형

사 외에도 바둑·등산대회와 가을 홈커밍데이 등을 통해 동문간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AMPFRI동창회

상해로 맛기행 다녀와

식품 및 의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申一汕)는 지난 9월 3~5일 중국 상해에서 해외연수를 개최했다.

동문들은 2박3일 동안 상해요리로 유명한 소남국, 남상만두집, 녹파랑주루, 송운루 등을 둘러 중국의 음식을 맛보았으며 상하이엑스포, 상해박물관, 신천지, 남경로, 타이강루를 관람했다. 이번 연수에는 申一汕회장, 文允奉수석부회장 등 30여 회원이 참가했다.

동송클럽

李根洙교수 포럼 강연

문리대 65학번 동기 모임인 동송클럽(회장 朴熙俊)은 지난 9월 10일 서울 삼성동 현죽빌딩에서 모교 朴明珍부총장 등 35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19차 동송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경기대 李根洙

(사학65-72)교수가 강연자로 나와 ‘스페인 성지순례의 길’을 들려줬다.

李동문은 지난 7월 한 달 간 스페인 산티아고지역 8백km를 순례했다.

동송클럽(www.dongsoong65.net)은 지난 2002년 창립돼 4백여 명의 회원이 있으며 분기별 정기포럼, 등산, 여행 등을 통해 동문간 친목을 다지고 있다.

화학생물공학부동창회

29회 동기회 골프 단체 우승

화학생물공학부동창회(회장 楊世仁)는 지난 9월 12일 강원도 홍천군 성우오스타CC에서 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 결과(신페리오방식 적용)는 다음과 같다.

▲단체우승 및 최다 참가상: 29회 동기회 6명 참석 ▲개인 우승: 南泳雨(화학공학71-75)동문 70.8타 ▲준우승: 金榮奎(공업화

학76-80)동문 72타 ▲메달리스트: 金相旭(화학공학61-65)동문 85타 ▲니어리스트: 鄭喆壽(응용화학71-75)동문 4.8m ▲롱기스트: 羅允弘(화학공학90-96)동문 2백55m ▲다과상: 朴賢修(화학공학86-91)동문 11개 ▲다보기상: 李敏哲(응용화학67-71)동문 13개 ▲다버디상: 孫東槿(공업화학81-85)동문 1개 ▲행운상: 朴光旭(화학공학74-81)동문 〈南〉

회비를 납부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포켓용 DIARY·탁상용 달력을 드립니다

본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포켓용 DIARY’와 ‘탁상용 캘린더’를 준비했습니다.

동창회 DIARY와 캘린더는 모교 발전과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평생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주신 동문께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1년 辛卯年의 설계와 구상을 동창회 DIARY와 캘린더로 준비하시고 보람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동창회를 사랑해 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총동창회

10.11 월
행사 캘린더

10월 18일(월) 오전 10시30분

• AIP동창회 골프대회

경기도 여주 렉스필드CC
(문의: 878-9467)

10월 30일(토) 오전 9시

• 문리대 65학번 동기모임

인천 강화군 석모도
(문의: 총무 011-412-0757)

10월 30일(토) 오전 11시

• 생활대동창회 홈커밍데이

모교 관악캠퍼스 생활과학대학
(문의: 880-6828)

10월 31일(일) 오전 9시

• 토목공학과동창회 홈커밍데이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문의: 880-7358)

11월 3일(수) 오후 7시

• 관악언론인회 여기자모임

한국언론진흥재단 매화홀
(문의: 702-2233)

11월 7일(일) 오전 9시30분

• 사대동창회 바둑대회

서울 서초동 서울교대
(문의: 6399-6500)

화제의 동문

여자야구 국가대표 崔水晶동문

女야구위원·야구단 감독도 맡아

스포츠 우먼 전성시대다. 양궁과 골프에서 두각을 나타내더니 어느 날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가 등장하고 최근에는 여자 축구 선수들이 남자가 이루지 못한 위업을 달성하고 있다. 그 여세를 몰아 남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야구 분야까지 활발하게 도전하고 있다.

崔水晶(물리94-98)동문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구력 6년의崔동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대표로 선발돼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제4회 세계여자야구월드컵에 출전했다. 네덜란드전에서는 2타점을 올리기도 했다.崔동문은 국제야구연맹(IBAF) 산하 여자야구위원회 초대위원으로 우리나라 여자야구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볼에 맞아 코뼈 부러지기도

CD네트워크 IT운영팀장으로 활동 중인崔동문은 주말이면 여자야구단 ‘나인빅스’ 감독 겸 선수로 변신해 방망이를 휘두른다. 주중에는 밤샘 근무도 마다하지 않지만 주말에는 하늘이 두 쪽 내려라도 야구를 하러 간다. 입사 면접 때 “인생에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는 질문에 “주말에는 꼭 야구를 해야 한다”고 답했을 정도다. 이번 야구월드컵에도 회사에 휴가를 내고 출전했다.

崔동문이 야구에 흥미를 갖게 된 것은 1990년 중남여고 1학년 자율학습 때 라디오 중계를 들으면서부터다.

“친구들이 음악을 들을 때 저는 야구 중계를 들었어요. 그냥 재미있었어요. 물을 하나 둘씩 알아가면서 작전도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야구장에 직접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구장을 처음 봤을 때의 그 느낌이 지금도 생생해요. 푸른 잔디와 파란하늘의 조화란! 가슴이 확 트이

는 느낌이었죠. 당시 빙그레 이글스의 송진우 선수가 노히트노런도 기록하는 등 최고 전성기였는데, 굴하지 않고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배짱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렇게 야구에 빠져들게 된 거죠.”

대학에 들어와 여자야구 동호회를 찾았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대신 남동생들과 캐치볼을 하며 아쉬움을 달랬다. 체육 교양수업으로 야구가 있었지만 남자들 틈에서 방해가 될 것 같아 수강하지는 못했다.

대학원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던 어느 날 남동생으로부터 여자야구단이 창설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곳에서 6개월 정도 활동을 하다가 2005년 6월 25일 나인빅스를 창단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선수로 불리는 안향미 씨한테 야구의 기초를 배웠다. 야구교실에 등록도 하고 유소년 지도자 세미나도 참석하는 등 일반인에게 야구를 가르쳐 주는 곳은 어디든 찾아갔다. 초등학교 야구감독 등 지도자들을 초빙해 훈련 방법도 배우고 일지도 작성하며 야구단의 기초를 다져나갔다.

경기와 훈련 과정에서 부상도 많았다. 멍은 일상다반사다. 도루하는 선수를 태그하다가 손가락 뼈에 금이 간 적도 있고 배팅한 볼에 코를 맞아 부러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야간경기 도중 볼에 입을 맞아 입술이 터지고 치아 몇 개를 상하기도 했다. 부모님의 심정이 어떨까?

“처음에는 많이 혼났는데,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이를 다치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괜찮다.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큰 탈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초월하신 듯 해요. 신기한 건 그렇게 다치고도 기어이 목발을 집고라도 야구를 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스포츠와 달리 여자야구는 엘리트 스포츠로 육성되지 않아 사회인야구단이



전부다. 국가대항전이 있을 경우 사회인야구단에서 선수를 선발한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23개 여자야구단이 운영되고 있다. 이 팀들끼리 2007년 한국여자야구연맹을 결성해 프로야구처럼 매년 리그전을 갖고 있다. 경기 수는 1년에 10~20회 정도.

崔동문의 나인빅스(cafe.daum.net/NineVics)팀은 올해 계룡시장이 전국여자야구대회에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나인빅스는 경기에 임한 9(Nine)명의 선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승리(Victory)를 추구한다는 의미다. 현재 회원은 30명 정도. 야구를 사랑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장비구입 등의 비용이 만만치 않다. 공, 헬멧, 배트 등의 공동장비 외에도 개인적으로 글러브, 유니폼, 스파이크 등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회비를 제외하고 최소 5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회원 등록 후에도 일정기간의 인턴을 거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석. 훈련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훈련장이 부족하다. 야구부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초·중·고교 운동장은 야구팀에게 개방을 꺼리고 있다. 기물파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매주 훈련장을 찾아 유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TV프로그램인 ‘천하무적 야구단’에서 구장 건립 홍보에 열을 내는 이유다.崔동문은 “야구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꿈이 야구장을 짓는 것”이라며 본인도 이 문제를 위해 구체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했다.

“올림픽공원에서 캐치볼을 하는데, 그것도 막더라고요. 공 차는 것은 허용하면서요. 야구장 관객은 매년 늘어지만 실제로 이들이 즐길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죠. 서울 인근 땅값이 너무 비싸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어요. 제가 야구장 고민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웃음)”

모교 야구장을 빌려본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서울대에도 야구동아리가 많아 그 팀들의 일정만으로 주말이 포화상태라 시도조차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대야구장의 문제에 대해 한마디했다.

“모교 야구장 리모델링 필요”

“서울대야구부 李光煥감독님을 뵈러 몇 번 가 본 적이 있는데, 그라운드 상태가 엉망이더군요. 여기저기 돌이 튀어 올라 불규칙 바운드뿐 아니라 사고 위험도 높겠더라고요. 서울대가 야구전문가 양성소인 ‘베이스볼 아카데미’도 개설한 마당에 야구장도 인조잔디로 새롭게 탈바꿈했으면 좋겠어요.”

崔동문은 고등학교 시절 물리를 제일 못해서 물리학과를 선택했다고 한다. 못했지만 도전하고픈 매력이 물리에 있었단다. 야구도 마찬가지. 쉽게 되는 것은 재미를 못 느낀다는崔동문은 “야구가 어렵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했다. 미혼인崔동문을 사로잡을 남자는 야구를 뛰어넘는 흥미로운 인물이어야 할 것 같다. 〈南〉

“당선은 예비 信任… 이제부터 신임 평가 시작됐다고 생각”

동문을 찾아서

吳 然 天 모교 제25대 총장



대 담 : 許文明(동아일보 국제부 차장)논설위원

－ 법인화 계획을 들려주시죠.

“서울대가 기본안을 만들고, 정부가 정부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죠. 1년 이상 법안 상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상정이 돼서 최종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라고 있죠.”

－ 어떻게 총장님 임기 중에 커다란 변화가 있겠네요.

“그렇죠. 11월 이후 법안 상정이 이뤄지면 토론이 전개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울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야죠. 하지만 상정도 안 돼 있는 안건을 서울대 총장이 빨리 처리해 달라 혹은 찬성한다,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순리에 어긋나죠.”

－ 임기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2010년은 서울대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전환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대가 학문적 가치창조의 기관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동안 선진 외국의 학문을 배워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면, 이제는 본원적 가치를 창조해 국내에 확산시킬 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연구하고 인재를 키워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학문 후속세대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고 나눌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는 일입니다. 그동안 서울대 출신들이 국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어떤 한 측면에서는 비판도 받았습니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총장 선거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서울대가 돼야 한다’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습니다. 남에 대한 배려와 나눔이 몸에 배어 있을 때 지식과 가치창조도 의미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범 글로벌 차원에서 아시아 중심 국가로서 우리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학생이나 교수들이 해외로 진출을 많이 한다거나,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거나 하는 글로벌화가 아닌, 본질적으로 한국이 아시아 중심 국가로서 추구해야 할 고유의 문화적 또는 기술적, 학문

적 가치영역이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훌륭한 인재와 새로운 연구를 통해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 더 본질적인 것들, 연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요즘 대학 평가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 그런 외형적인 수치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종합 대학교고, 21개의 단과대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비교에 우리가 있고) 곳곳이 교수, 학생으로서 본연의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평가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그러나 평가에 대해一喜一悲하거나 반박논리를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 그래도 최근 더 타임즈 대학평가에서 서울대 점수가 좀 박했는데요.

“그것도 여러 가지 사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구차하게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평가가 나올 때

모교 제25대 총장 선거가 치러진 지난 5월 3일, 까다롭기로 유명한(?) 서울대 교수들 속성상 ‘2차 투표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吳然天(정치70-74)총장이 예상을 깨고 1차 투표에서 8백80.3표로 과반을 넘기며 당선됐다. 교수 1백명이 소속된 단과대 출신이 아닌, 정원이 20명 남짓한 행정대학원에서 총장이 나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선거에서 吳총장이 내건 ‘서울대 청사진’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배려’와 ‘소통’에 무게를 두고 살아온 吳총장의 리더십이 당선비결이었다고 말한다.

실제로 吳총장은 지난 8월 2일 취임식에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도움과 나눔을 끌어내는 일이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비판과 관심이 있어야 발전을 한다”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경청의 리더십’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당선이 아니라 당선 이후”라고 생각해 각종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도 삼갔다는 吳총장이 지난달 29일 본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마침 그 날 신문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대 법인화, 학장 직선제 폐지와 성과연봉제 도입 등 내부 개혁을 위주로 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는 소식이 실렸다. 서울대 법인화 문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적 가치를 만드는 것이 연구고, 그것을 잘 전달하는 것이 교육이죠. 교육, 연구를 따로 놓을 수는 없죠.”

－ 맞는 말씀이신데,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 대목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학문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대학 본연의 역할이나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총장님께서 생각하기에 기존의 서울대는 그런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건가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 시대적인 변화, 진화론적 입장에서, 발전단계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죠. 소위 개발연대, 탈 개발연대, 외환위기 등을 거쳐 견고한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갖게 됐고, 미래로 나가는 현 상황에서 연구에 가치를 두는 게 국립서울대의 소임이라는 말이죠.”

－ 두 번째 말씀하신 나누고 헌신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

· 吳然天총장은

△1951년 충남 공주 출생 △경기도 졸업 △모교 정치학과 학사 △미국 뉴욕대 석·박사(재정관리) △제17회 행정고시 합격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모교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조세협회장 △모교 행정대학원장 △기획예산처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장 △한국공공선택학회 회장 △지식경제부 산업발전심의 위원장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장 △모교 특별재정위원장 △‘강한 시장과 건강한 정부’ 등 저서 다수 △홍조 근정훈장 수훈

국민에게 사랑 받는 서울대돼야

학문 후속세대 우리 스스로 양성

마다 또 한번의 자기성찰을 통해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본연의 역할에 대해 더 헌신하고 매진했는가’를 돌아보고, 더 나아가 국립서울대로서 국민에게 어떤 새로운 가치창조의 영역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를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한국이 가진 가장 큰 힘이 뭐니까. 인재 강국 아닙니까. 인재는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그야말로 무장된 인재를 키워내고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문적 가치를 강조하셨는데 연구중심 대학으로 가겠다는 것인가요.

“우선 대학의 기본은 교육과 연계된 의미에서의 연구겠죠. 교육과 연구가 따로 분리될 수 없죠. 연구중심대학은 개발연대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국가발전을 위해 무게 중심축을 교육에서 연구로 옮기자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연구중심대학이란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

천할 계획인가요.

“논술 수준의 질문이네요(웃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들이 먼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 국립서울대로서 국민적 기대를 넘어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사이버 교육을 강화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서울대 교수인가, 왜 국민들이 서울대에 대해 기대하는가, 거기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를 포함한 모든 교수들이 끊임없이 자기 성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자기 발전, 대학 발전, 사회 발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부분이 견고해지고 서울대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채워질 수 있겠죠.”

－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대학사회의 격을 높이는 일에 중점을 두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가 많다고 생각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신적 품격을 높이는 일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총장으로서가 아니라 교직자의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자면, 편가르기, 이분법, 이념주의가 너무 팽배해요. 우리 사회가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시민단체에서도 다 그래요. 여러 부분이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이에요. 그런데 인간사회에서 ‘올 오어 낫씽’은 없거든요. 6:4, 7:3 등 찬반양론이 갈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 그것도 또 시대에 따라 상대적이고요. 국민소득이 2만 달러라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서 상대주의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실천하는 일에 대학이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주의가 토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소통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합의를 이루기 위해 약자의 순응을 도출하려면 강자가 인내와 넓은 마음으로 약자의 입장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합의점에 이르는 과정에서 소수자나 약자의 의견이 투입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주의 가치가 우리 사회 공통분모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는 추상적이긴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집단간, 조직간, 정파간의 신뢰회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믿지 않거든요. 교수 생활을 30년



고득점자 외 가능성 있는 학생에게도 기회 제공해야

☑ 하면서 TV토론회 같은 여러 토론회를 많이 봐 왔는데, ‘내 지식이 부족했구나. 내가 편견을 갖고 있었다. 당신 말이 맞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이 부분에는 반응을 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중요한 것은 신뢰의 회복, 강자의 배품, 나눔, 소통, 기여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학 학문 세계가, 지식인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선거에서 과반 이상의 표를 받으셨는데 그 원동력이 어떤 것인지 짐작이 갑니다.

“당선은 예비 신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사위를 던져 행운을 얻은 것이라고나 할까요. 일정 시간을 거쳐 구성원들의 기대에 충족하는 가치창조에 임했을 때, 그것을 만들었을 때 신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총장 의자에 앉아 있긴 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지금부터 신임 투표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임명을 받건, 투표에서 당선됐건 그것은 결코 영광할 일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순간부터 추락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성공한 공직자란 연착륙으로 도출해 내고 전환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대목에서 인생관을 여쭙고 싶은데요.

“저는 가톨릭 신자인데, 기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행복하고, 늘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저에게 할 일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제가 존재하는 것만도 행복한 일인데 사람들이 저에게 기대를 한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요. 그런 기대에 부응해서 상대방이 만족하면 그 얼마나 즐겁습니까. 교수로서 연봉수준은 모르지만 학생들을 가르치고 안내해서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돕고 좋은 생각을 하게 해서 가치를 만들면 그게 더 큰 돈을 번 게 아닌가 싶어요.”

— 총장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코스를 밟으셨고 인생도 순탄하게 살아오신듯한데 어떻게 그런 태도를 갖게 되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인간은 왜 존재하느냐, 남한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돼야 하는 것이냐, 남이 어려울 때 동반자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체질화돼 있는 거죠. ‘남으로부터 받은 도움은 꿈 속에서도 잊지 마라. 하지만 내가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즐거운 것이니 잊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해 왔어요. 젊은이들이 성공한 인생의 비결을 물으면 ‘땀(Thank you)를 제대로 하고 쓰리(sorry)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답해줘요. 쓰리를 하지 않고 엑스큐즈(excuse, 변명)만 하면 안 되죠.

또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잘 내요. 저는 솔직히 짜증이란 말을 싫어해서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짜증이란 말을 듣는 것 자체가 가장 짜증스러워요. 요즘 사람들은 결핍하면 짜증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문제죠. 여름에 더운 것은 당연한 건데 왜 덥다고 짜증을 내요. 더운데 물 뿌리면 시원해서 좋은 거지. 늦게 오는 사람에게 불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늦게 오면

전화해서 ‘왜 늦어, 어디야’ 그러는데, 아니 늦게 오는 사람이 마음이 더 불편할텐데, 거기다가 왜 늦냐고 하는 것은... 무슨 사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 청소년 자녀를 둔 동문들을 위해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입학사정관제 방향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가 학생을 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뽑은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 하에

학생을 뽑을 때 너무 기계화된, 획일화된, 표준화된 잣대만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는 학생에게도 기회를



남에게 받은 도움 절대 잊지 않아

“경제 변화에 걸맞게 학생 정원 늘여야”

줘야 합니다. 뜻이 크고 상상력이 풍부한 학생에게도 가능성이 있으면 기회가 주어진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입학본부에서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란 게 어떤 산수화된 지표로 나타나지 않은 부분을 가급적 찾아내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신뢰입니다. 우리 사회 한 편에서는 그런 불우한 입장에서 우수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한편에서는 그렇게 뽑은 근거가 뭐냐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이나 교육당국, 언론에서 대학의 입학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줘야 합니다. 표준화된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자기보다 못한 학생들을 감싸 안고 그들을 친구로 만들고, 도와주고, 같이 나가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교육이라고 봅니다.”

— 사실, 그게 진정한 교육이죠.

“버클리대학은 입학생 모집에서 정책적으로 아메리칸인디언에게 1%를 할당했다고

합니다. 아메리칸인디언이 미국 인구 중에 0.1%도 안 되는 데 1%는 큰 수치죠. 그러나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기 위해 그랬죠.”

— 버클리대학이 명문 대학이 됐던 힘이군요.

“그렇죠. 만일 우리 사회에서 어떤 대학이 고유한 목표가 있어서 그러한 원칙을 정하면 아마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 대학의 목표가 있고, 사립학교는 장학 이념이 있을 테니 존중해 주길 바라고 있죠.”

— 정원을 늘릴 계획이 있으세요.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는데.

“서울대가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정원을 많이 감축해 왔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경제 변화, 국민적 기대 욕구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민경제의 변화에 맞는 학생 정원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10~15년 전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조선강국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세계 10

대 조선회사 중에 우리나라 업체가 6~7개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선공학과와 경우 10년 전 정원에서 그대로입니다. 원자력공학과도 마찬가지죠. 원자력 수출도 해야 하고 원자력 강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요. 정책 당국에서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 총장님께서 세우신 목표 재정에 대해 액수가 많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의 가용 재정규모가 약 8천억원쯤 됩니다. 총 재정규모는 1조2천억원 정도 되고요. 실제 쓸 수 있는 것과 총 재정규모와는 중복 계산이 있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자연증가율로 10%를 계산하면 4년 후면 자연적으로 2조원 정도가 됩니다.”

— 자연증가는 뭐죠.

“연구비 총액이 매년 10~15% 증가하고, 또 정부로부터 받는 일반회계 역시 5~10%씩 증가합니다. 발전기금도 10% 정도 증가하고요. 자연증가율 상태로 보면 2015년에는 2조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4천억원 가량을 더 책정했습니다. 총장으로 나서는 사람이 그 정도의 의욕적인 목표는 제시해야 하지 않겠어요? 새로운 총장이 노력을 해서, 일반회계가 10% 증가했다면 15%로, 연구비 총액규모도 20% 수준으로, 발전기금도 20%로 하면 2조4천억원 정도 만들 수 있죠. 그 정도는 꽤야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발전기금 부이사장직 신설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겠네요.

“그동안 부총장이 겸임하던 것을 별도로 부총장급의 부이사장직을 만들었죠. 역할 분담 차원에서 연구와 기획담당 부총장도 신설했구요. 연구 수주를 많이 해야 되니까요. 정부 또는 민간이 하는 연구에 대해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안하고 기획까지 해서 국가정책으로 만들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받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연구와 기획담당 부총장을 둔 것이죠. 연구비 총액 20% 증가를 기대합니다.”

— 모교 개교 원년 조정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동창회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인데, 이 부분은 의사결정 기구인 평의원회가 결정을 내려야 할 부분입니다. 평의원회가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면 저희는 집행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 뭐라 하는 것은 집행기구의 장으로서 적절하지 않고, 평의원회에서 판단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논점은 국립서울대학교의 역사적 의미에 토대를 둔 역사 찾기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덕목이 있으신지요.

“사람과 만날 때면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면 경청하자’고 늘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신의, 성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사진= 金南柱기자)



평의원회 ‘개교 원년 조정’ 워크숍 연구보고서 및 토론자 소견 발표

모교 소식

모교 평의원회(의장 朴彬沃)는 지난 9월 10일 관악캠퍼스 교수회 관 본회의실에서 모교 개교 원년 조정 연구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평의원회가 위촉한 6명의 연구자가 4개월간 자료 검토와 외부자문, 내부 토론을 거친 연구보고서 발표와 토론자들의 소견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모교 사회학과 朴明圭(사회74-78)교수는 연구보고를 통해 “각 단과대의 전통과 역사를 인정하지만 종합대학으로서 모교는 식민지시대와 단절성을 갖고 1946년에 개교한 것에 밀접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그 이전으로 개교 원년을 삼아야 하는 절실한 이유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빠른 시간 안에 이만큼 발전해서 더 자랑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연구를 통해 모교를

사랑하는 동문과 동창회의 애교심과 노력에 감동했다”며 “그렇지만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고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 역사 연구를 통해 서울대의 정체성과 사회적 소명 의식을 바로 가져야겠다”고 발표했다.

朴彬沃의장은 “학장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개교 원년 재조정 문제에 대한 공청회의 이견이 있어 평의원회 운영위에서 연구하게 됐다”고 워크숍의 개요를 설명했다.

이어 지정 토론자들은 모교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 본회 林光洙회장과 국사학과 李泰鎭명예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각자의 소견을 발표했다.

본회를 대표한 토론자이자 평의원인 洪性大부회장은 “많은 단과대학이 1946년 이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소중한 뿌리를 되찾자는 동문들의 움직임이 일체의 반대 없이 집행부를 격려하며 지금까지 진행돼 왔다”며 개교 원년 재조정 과정의 추진과정을 설명한 뒤 “李泰鎭명예교수의 연구논문을 읽으면서 경성제대에 대한 콤플렉스는 사라졌고 만일 이번 의견이

평의원회에서 통과돼 받아들여진다면 33만 동문들이 크게 보람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법대 鄭宗燮학장과 의대 任廷基학장은 단과대학 중 연원이 가장 먼저인 법관양성소에 뿌리를 둔 교육기관을 모교의 개교 원년으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다며 개교 원년 재조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펼쳤고, 인문대 邊昌九학장은 조금 더 신중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李泰鎭명예교수는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우리나라 근대화와 관립고등교육기관의 설립과정을 설명하면서 “모교의 개교 원년 과정은 단순한 교육과정의 일부분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근대화 의식이 담긴 소중한 역사”라며 “신중한 것도 좋지만 명백한 사실을 자꾸 보류하면 안 된다”고 발표했다.

평의원회 全炯俊(중문75-79)총무간사는 “‘원년’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年號를 정한 첫 해, 국가를 세운 해를 의미하는데, 이 단어 대신 기원이나 연원이란 단어를 사용해야 옳다”며 “모교가 법인화가 될 때

새로운 건학 이념으로 정책화하는 입장에서 재조명할 수는 있어도 지금의 시점에서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개교 원년 조정에 관한 공동연구자인 權泰櫨·丘凡眞·金赫·尹眞秀교수와 본회 임원들의 소감 발표가 있었다.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은 통합 후 가장 빠른 단과대학 역사를 기원으로 삼은 미국의 카네기멜론대의 예를 든 뒤 “恒産者 恒心이라고 이제 겨우 정신을 차려 다락 속에 처박혀 있던 족보를 찾아 먼지를 털고 정리를 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나선 것이고, 이미 법대 동창회 명부에는 법관양성소 출신인 李 僑열사와 咸台永 前부통령이 동문으로 등재돼 있다”고 설명하고, 모교를 두고자 하는 동문들의 순수한 정성이 담겨 있다는 점을 배려해 달라고 역설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洪性大부회장 겸 관악회 상임이사를 비롯해 尹勤煥·劉鐘海·李海遠·孔大植·李炯均·姜寅求부회장, 미대동창회 金鳳九회장, 본보 徐玉植은설위원 등이 참석했다.

모교 金信福전임 부총장, 李昇鍾부총장, 南益鉉기획처장, 인문대 邊昌九학장, 법대 鄭宗燮학장, 의대 任廷基학장, 교육학과 鄭範謨명예교수, 국사학과 李泰鎭명예교수·權泰櫨교수, 사회학과 朴明圭교수, 동양사학과 丘凡眞교수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또 평의원회 朴彬沃의장, 李駿圭부회장을 비롯해 평의원인 인문대 金仁杰·全炯俊교수, 사회대 王翰碩교수, 자연대 金冠·金赫교수, 공대 朴鍾根교수, 법대 尹眞秀교수, 사대 鄭哲秀교수, 수의대 李文漢교수, 약대 金榮中·崔應七교수, 행정대학원 崔炳善교수, 치의학대학원 金各均교수 등이 참석했다.

국제대학원장에 白珍鉉교수 선임



모교는 지난 9월 22일 국제대학원장에 白珍鉉(법학76-80)교수(사진)를 선임했다.

신임 白원장은 경기고 졸업 후 1976년 모교 법학과에 입학했으며 美컬럼비아대에서 석사학위, 1989년 英케임브리지대에서 국제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白원장은 성신여대, 이화여대, 연세대를 거쳐 1997년 모교에 부임해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美랜던연구소 초빙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국제해양재판소(ITLOS)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재 채용박람회 1백4개 기업 참가

모교는 지난 9월 7~8일 관악캠퍼스 대학본부 앞 잔디밭에서 교육과학기술부·고용노동부·본회가 후원한 ‘2010년 우수인재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일곱 번째인 이번 박람회에는 모교 인재 채용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해마다 높아져 삼성, 현대, SK를 비롯한 대기업과 공기업, 외국계 기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백4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경력개발센터(소장 金泰完)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넓은 시야로 나만의 기업을 찾아라’는 테마로 진로상담·검사, 경력개발 워크숍, 국제취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 (榮)

모교 재학생 감사의 뜻 모아

鄭哲圭이사장 위한 이벤트 개최



최근 모교 재학생들이 20년에 걸쳐 모교에 1백33억원을 기부한 신앙문화재단 鄭哲圭이사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지난 7월부터 기획한 ‘신앙 할아버지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이벤트는 △대형 모자이크 초상화 제작 △편지 쓰기 △학생들의 기부금 모금 등으로 이뤄졌으며 모금액은 추후 중·고등학생의 장학금과 무료공부방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재학생들은 ‘올바른 신앙 만들기’ 설문조사를 실시해 모교 관악캠퍼스 내 鄭이사장의 기부금으로 지어진 신앙학술정보관(공대·인문대·사회대)의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본 부측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를 추진한 모교 대학원 석사과정 문주용(화학물질공학 04-08)동문은 “그동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자에게 감사를 전하는 자리는 없었다”며 “이번 이벤트가 鄭이사장님의 뜻을 이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30일 이벤트의 마지막 순서로 관악캠퍼스 법대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84동)에서 선물증정식과 학생대표가 대독하는 鄭이사장의 강연이 열렸다.

鄭이사장은 1948년 모교 화학공학부에 입학해 1952년 졸업했으며 지난 5월 7일 모교에서 명예 공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태성고무화학의 창업자로 공과대학동창회장,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 등을 지냈다. 2000년 본회 관악대상(협력 부문), 2005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 2008년 모교 발전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분당 모교 병원

첫 후원인의 밤 행사

분당 모교 병원(병원장 鄭鎭樺)은 지난 9월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1회 후원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 행사와 달리 간호사들이 직접 선보인 댄스 무대를 비롯해 소아청소년과 黃熙(의학91-96)교수의 피아노 연주 등 직원들이 직접 선보인 다채로운 이벤트로 후원자들의 커다란 호응을 이끌어냈다.

일성화학 鄭潤煥회장

농생대 발전기금 2억원 쾌척

일성화학 鄭潤煥(임학56-62 본회 부회장)회장이 지난 9월 2일 모교 총장실에서 발전기금 출연식을 갖고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발전을 위해 2억원을 쾌척했다.

鄭회장이 출연한 기금은 모교 관악캠퍼스와 농생대 수원캠퍼스를 오가며 연구와 실습을 지원할 셔틀버스의 확충과 재학생 장학 지원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鄭회장은 1978년 일성화학을 창업해 화학약품의 외길을 걸으며 보육원 사업 지원과 장학금 지원 등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천보육원 후원회장, 모교 농생대 교육연구재단 이사, 임학동문회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5월 15일 농생대동창회장에 취임했다.



李明哲·吳然天·鄭潤煥·崔蓮梅·朴恩雨동문

성문전자 辛東烈회장

후원금 3천만원 출연



한편 지난 9월 6일 성문전자 辛東烈(GLP 3기)회장(사진)이 분당 모교 병원에 발전후원금 3천만원을 출연했다. 후회장은 분당 모교 병원의 성공적인 증축을 기원하며 “앞으로 분당 서울대병원이 세계적인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榮)

재학생의 소리



국제리더십학생협회를 아시나요?

Hey, AIESEC(아이섹)! 이 말은 국제리더십학생협회 회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인사입니다. 저는 제48기 AIESEC 서울대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주 상산고를 졸업하고 2009년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에 입학했으며, 1년간 AIESEC 지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임기 이후에는 AIESEC 경험을 발판 삼아 경영학을 복수전공해 물리학과 경영학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에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AIESEC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AIESEC은 UN이 인정한 세계 최대의 학생 자치단체로서, 현재 1백7개국 5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1962년 ‘국제경상학생협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됐고 현재 국내 주요 14개 대학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대 지부는 한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지부로, 현재 48·49기 회원들 60여 명이

활동 중입니다.

AIESEC은 ‘평화와 인간 잠재력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인재가 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



들은 해외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그 나라를 느끼고, 여러 나라에서 온 대학생들과 같이 일하며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들은 조직을 운영하며 리더십을 기르고, 인턴십을 중개하며 기업과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을 통해 대학생이 쉽게 하기 힘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AIESEC에서 활동한 1년 반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국제적인 안목을 기르고, 제 자신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곧 50주년을 맞는 AIESEC을 꾸준히 성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AIESEC

李 昊 俊(물리천문09)

AIESEC 서울대 지부장

활동에서 가장 힘든 것은 여러 학내외 기업과 단체에서 단지 학생들이 운영하는 단체라는 이유로 AIESEC에 크게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선배님들께서 저희 단체의 취지와 활동을 이해해주시고, 저희 회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미래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정년교수 프로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교에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친 교수 29명의 정년· 명예퇴임식이 지난 8월 31일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열렸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헌신의 삶과 그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분들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한다.



金曉明교수·철학

64년 모교 철학과에 입학해 68년 졸업, 82년 미인디애나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8년 모교에 부임해 서양근대철학과 인식론을 강의했으며 모교 인문학연구소장, 서양근대철학회, 한국분석철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李承勳교수·경제학

63년 모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82년 미노스웨스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7년 모교에 부임해 미시경제학 분야를 강의했으며 모교 학생부처장,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계량경제학회 등을 지냈다.



許宇珧교수·지리학

63년 모교 지리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83년 미오하이오주립대에서 지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4년 모교에 부임해 지리학 분야를 강의했으며 모교 지리학과장·국토문제연구소장, 대한지리학회 등을 지냈다.



金夏典교수·화학

63년 모교 화학과에 입학해 67년 졸업, 73년 미일리노이대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7년 모교에 부임해 전기분석화학 분야를 강의했으며 모교 자연과학대학장·특임부총장, 대한학회 부회장, 한국전기화학회장 등을 지냈다.



李東圭교수·지구환경과학

65년 모교 천문기상학과에 입학해 74년 졸업, 81년 미위스콘신메디슨대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3년 모교에 부임해 대기화학 분야를 강의했으며 모교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기원장·대기환경연구소장, 한국기상학회 등을 지냈다.



李在賢교수·물리천문학

65년 모교 물리학과에 입학해 73년 졸업, 80년 미서던캘리포니아대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2년 모교에 부임해 물리학 분야를 강의했으며 모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장, 한국광학회 이사 및 회장 등을 지냈다.



金斗賢교수·물리천문학

66년 모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74년 미존스홉킨스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7년 모교에 부임해 물리학 분야를 강의했으며 아태이론물리센터위원회 위원장, 2004 국제물리올림피아드 학술회의 위원장 등을 지냈다.



朴廷堯교수·경영학

64년 모교 독어독문학과에 입학해 68년 졸업, 73년 미플로리다주립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6년 모교에 부임해 경영학 분야를 강의했으며 모교 증권·금융연구소장, 연금관리투자위원회 위원장, 재무학회 등을 지냈다.



尹桂堯교수·경영학

64년 모교 상학과에 입학해 68년 졸업, 80년 모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3년 모교에 부임해 경영학 분야를 강의했으며 모교 교무처장·경영대학장, 한국증권학회, 한국증권경제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吳洙益교수·기계항공공학

63년 모교 기계공학과에 입학해 68년 졸업, 76년 미캘리포니아대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92년 모교에 부임해 기계공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기여했으며 모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장, 한국소성학회 등을 지냈다.



李長茂교수·기계항공공학

63년 모교 기계공학과에 입학해 67년 졸업, 76년 미아이오와주립대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6년 모교에 부임했으며 모교 제24대 총장, 대한기계학회 등을 지냈다. 현재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康 卓교수·재료공학

64년 모교 금속공학과에 입학해 68년 졸업, 76년 미佛엑스마르세이유대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6년 모교에 부임해 금속공학 분야를 강의했으며 모교 신소재공동연구소장·금속공학과장, 한국부식학회 등을 지냈다.



李景俊교수·산림과학

63년 모교 임학과에 입학해 71년 졸업, 77년 미플로리다대에서 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5년 모교에 부임해 산림과학 분야를 강의했으며 모교 식물병원장, 제18대 한국임학회, 한국밀원소조림육성협회 회장 등을 지냈다.



金性洙교수·농경제사회학

63년 모교 농업교육과에 입학해 67년 졸업, 79년 미미네소타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에 부임해 농촌커뮤니케이션 분야를 강의했으며 한국 농업교육학회 편집위원장, 한국농촌지도학회 등을 지냈다.



曹鍾守교수·농생명공학

66년 모교 잠사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79년 미도쿄공업대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98년 모교에 부임해 조직공학 분야를 강의했으며 한국생체재료학회 부회장,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장 등을 지냈다.



辛光錫교수·디자인학

64년 모교 응용미술과에 입학해 68년 졸업, 73년 모교 대학원에서 미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에 부임해 도자공예 분야를 강의했으며 모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장·부학장, 한국현대도예가회 회장 등을 지냈다.



劉里知교수·디자인학

64년 모교 응용미술과에 입학해 68년 졸업, 70년 모교 대학원에서 미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에 부임해 금속공예 분야를 강의했으며 모교 미술대학 공예과장 등을 지냈으며 치우금속공예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金鍾中교수·영어교육

64년 모교 영어교육과에 입학해 68년 졸업, 70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81년 미텔사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83년 모교에 부임해 영문학을 강의했으며 모교 교수협의회 부회장,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 등을 지냈다.



李明杰교수·약학

64년 모교 약학과에 입학해 68년 졸업, 82년 미일리노이대에서 약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6년 모교에 부임해 약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모교 종합약학연구소 부소장, 대한약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韓龍男교수·제약학

65년 모교 약학과에 입학해 69년 졸업, 77년 미오사카대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2년 모교에 부임해 천연물과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모교 천연물과학연구소장, 한국응용약물학회 등을 지냈다.



沈永秀교수·의학

63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69년 졸업, 87년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에 부임해 내과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모교 결핵연구소장,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등을 지냈다.



鄭文祥교수·의학

65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71년 졸업, 80년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에 부임해 정형외과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대한수부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 등을 지냈다.



崔 湜교수·의학

63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69년 졸업, 76년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2년 모교에 부임해 소아비뇨기과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모교 어린이병원장, 대한비뇨기과학회 이사장 등을 지냈다.



金辰圭교수·의학

70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76년 졸업, 84년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4년 모교에 부임해 검사의학 분야를 강의했으며 대한임상화학회장, 세계검사자동화 및 로봇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건국대 제18대 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成淑煥교수·의학

72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78년 졸업, 89년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7년 모교에 부임해 흉부외과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대한폐암학회 홍보위원장, 대한흉부종양외과학회장 등을 지냈다.



房錫炫교수·행정학

64년 모교 응용물리학과에 입학해 69년 졸업, 76년 미위스콘신메디슨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에 부임해 행정학 분야를 강의했으며 모교 정보통신행정연구소장·한국행정연구소장, 통신평발연구회장 등을 지냈다.



鄭弘翼교수·행정학

63년 모교 사회학과에 입학해 67년 졸업, 77년 미미네소타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에 부임해 행정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모교 행정대학원 부원장, 한국문화정책학회 등을 지냈다.



李達坤교수·행정학

73년 모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해 77년 졸업, 87년 미하버드대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8년 모교에 부임해 정책학 분야를 강의했으며 모교 행정대학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한국협상학회, 제18대 국회위원 등을 지냈다.



白基碩교수·치의학

64년 모교 치의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79년 모교 대학원에서 치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에 부임해 치의학 분야를 강의했으며 모교 치학연구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이사, 대한구강해부학회 등을 지냈다.

콩트 릴레이

관계의 構圖

金 志 龍(국제경제83-89)소설가



박 기사는 자신의 택시가 뿔어내는 흰 전조 등 불빛이 생뿔주집에서 새어나온 불빛과 맞닿는 인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 희끗한 중년의 남자가 삼십 대 중반의 남자를 차도로 밀어내며 박 기사의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오른손에 포장된 치킨을 든 삼십 대 남자는 취기를 이기지 못해 비틀거리면서도 왼손만큼은 중년 남자의 팔을 끼고 놓지 않았다.

박 기사는 중년의 남자 가까이로 천천히 택시를 몰아갔다. 그들의 실랑이를 마냥 기다리기에는 주위가 너무 심심했다. 아파트 상가에서 유일하게 문을 연 생뿔주집과 차량이 끊긴 길에서의 두 남자를 제외하고는 바람의 흐름만이 살아 있을 뿐이었다. 교대시간도 녀석한 잠이라 무료함이 더 답답하게만 느껴졌다.

택시가 다가드는 소리에 삼십 대 남자가 흘깃 돌아봤다. 아뿔싸, 그 틈을 비집고 중

하나가 택시의 문을 여는 순간, 차단막에 구멍이 뚫리며 비로소 자신과 관계된 한 인간이 탄생했다. 그 인연이라야 ‘어디 갑시다’ 하면 ‘예’ 하고 차를 몰아가는 것밖엔 아니었다. 술한 손님이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일상의 사소한 인연인데, 그로부터 발생하는 감상이 왜, 일상의 감상처럼 의식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는지 박 기사는 이해할 수 없었다. 손님이 택시 문을 열고 그의 영역에서 물러날 때도 그랬다. 구체적인 한 사람이 다중 속으로 섞여들어 자신과의 인연을 끝내는 그 반복되는 과정이 습관처럼 그저 자연스러워야 당연했다. 차창과 차문이라는 차단막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술한 과정은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의식 밖의 일이어야 옳았다. 그러나 박 기사는 익명의 누군가가 익명의 손님이 될 때 마치 자신의 옷매를 뚫고 가슴

를 미러에 역시나 등반이에 방해되지 않는 손님의 모습이 있었다. 사내는 취기 탓인지 머리를 뒤로 기대어 눈을 감은 채 무릎 위의 치킨 봉투를 꼭 끌어안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대동 아파트요’ 하고는 내내 그 자세인 사내가 잠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차창을 열었는데도 차 안에는 튀긴 닭고기 냄새에 묻어 역한 페인트 냄새가 가득했다. 아마도 사내의 몸에서 뿔어져 나오는 냄새일 터였다. 목욕을 하고 나선 길이겠지만 오랜 직업이 가져다준 인생경로처럼 그의 몸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냄새일 것이었다.

“저는 말입니다, 손님.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박 기사는 룸 미러를 흘끔 살피고 상대를 의식한 말문을 열었다. 앞자리 앉았던 젊은 남자 손님을 제외하고 뒷자리에 앉았던 모든 손님에게 똑같이 말을 건네 왔으면서도 전혀 질리지 않는 음색이었다. 때론 손님이 일찍 내려 말을 끝내지도 못했고 어떤 손님에게서는 핀잔만 들었던 뒤라 그만할 법도 했으나, ‘예민한 성격’이라는 자신의 확신을 부정하는 또 하나의 행위를 그는 서슴없이 되풀이하고 있었다.

“내일, 그녀를 만납니다.”

룸 미러의 손님은 반응이 없었다. 박 기사는 예상했다는 듯이 손님을 무시한 채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벌써 이십 년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 金多海(서양화02-07)

“박 기사는 익명의 누군가가
익명의 손님이 될 때
마치 자신의 옷매를 뚫고
가슴을 훑는 손길처럼
그 사람의 존재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해야 했다.”

년인이 삼십 대 남자의 옆을 지나쳐 택시로 다가서서는 택시의 뒷문을 열어 쫓았다. 아주 순간적인 일이었고 그 결과는 차문이 열린 것 하나가 다였다. 그러나 그 변화에 삼십 대 남자는 저항의 의지를 잃고 중년인이 떠나는 대로 비틀대며 택시로 내몰렸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른손에 치킨 포장 백을 든 삼십 대 사내가 왼손으로 택시의 지붕 쪽을 짚으며 버티고 서서는 허 꼬부라진 소리를 했다.

“이를 말인가.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어. 조금만 기다리라고. 일이야 곧 있지 않겠어?”

말을 하면서도 중년인은 삼십 대 남자를 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 웅췌다. 삼십 대 사내는 중년인의 완력에 밀려 맥없이 차 안으로 쓰러졌다. 중년인에게 다짐 놓고 싶어하는 사내가 몸을 일으키려다 탕 하고 닫히는 차문에 막혀 맥없이 고개를 떨쳤다.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박 기사는 손님이 타고 내릴 때마다 사뭇 묘한 감상을 느꼈다. 택시를 기다리는 잠재적 고객은 인도를 걷는 다른 인간 군상과 하나 다를 것이 없었다. 택시 차창을 하나 사이에 두고 그의 공간과 완벽하게 차단된 다른 세계의 인간일 뿐이었다. 그 군상 중의

을 훑는 손길처럼 그 사람의 존재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해야 했다.

예민한 성격 탓인지도 몰랐다. 뒷자리 손님 혹은 손님들과 사이에 놓인 등반이 하나가 마치 차창이나 차문의 차단막처럼 그의 신경을 위무해주는 걸로 미뤄 다른 이유는 없었어였다. 간혹 앞자리를 고집하는 손님을 맞을 때 느껴야 하는 불편함만 봐도 그랬다. 투명한 유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신의 공간과 타인의 공간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의 ‘예민한 성격’은 낮은 등반이라는 불완전한 차단막조차도 완벽한 차단막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듯했다. 하지만 손님과의 실재적인 관계를 이어주는 룸 미러에는 이 불완전한 차단막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뒷자리 손님을 편안히 맞을 수 있는 것이 등반이 때문이라는 그의 결론은 현실을 떠난 심리적 결과물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므로 엄밀히 따지자면, 룸 미러를 통한 간접적인 맞시선— 그가 보는 것은 손님의 상체 전체이지만 손님은 그의 눈밖에 볼 수 없다는 그 맞시선이야말로 그가 느끼는 편안함의 원인이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박 기사가 ‘성격 탓’을 하는 이유는 아련한 감상을 정면에서 해부할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었다.

박 기사는 서울 변두리 고지대에 살았는데 그가 사는 집 바로 아래 한 학년 밑 여학생이 살았다. 그의 방에서 창을 열면 한 자 건너 한 자 아래가 바로 그녀의 창이었다. 올려보고 내려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들은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을 뜬 후 그녀의 슬픔을 매개로 손을 맞잡고 올려보고 내려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로 발전했다. 그리고 한 자의 높이와 한 자의 거리는 그녀의 집에 계부가 들어서면서 허물어졌다. 술주정뱅이에 노름에 빠졌던 계부와 여관 카운터 일을 맡게 된 그녀의 어머니가 집을 비우면서 둘은 남몰래 그녀의 집을 신흠집으로 삼을 수 있었다. 가족의 불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를 향한 그녀의 사랑은 절대적이었다. 어느덧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그녀의 졸업을 기다리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해냈지만 그녀의 계부가 밑 빠진 독이라, 벌이란 벌이는 모두 그녀의 손을 거쳐 그의 계부에게로 간네졌다. 저축 하나 하지 못한 채로 입대를 하게 된 그가 사무치는 그리움을 이기고 제대를 했을 때, 마구 흐느끼며 중병에 걸린 어머니의 수술비를 위해 돈 많은 남자의 아내가 된 처지를 털어놓는 그녀를 마주해야 했다. 그 후로 그는 악착같이 돈 버는 일에 매달렸다.

제법 목돈이랄 수 있는 적금 만기가 다가올 시점에 그의 앞에 나타난 그녀는 사업에 실패한 남편 덕에 길거리로 나왔게 됐다며 역시나 흐느꼈다. 적금을 해약한 후에 그는 돈 벌이가 되는 중동의 건설 현장으로 뿔다. 반년 후 눈물로 얼룩진 편지지에는 큰 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 돈이 없다는 사연이 절절했고 역시나 그가 받는 월급은 모두 그 녀에게로 송금됐다. 귀국 날짜를 연기해가며 중동에 있다가 귀국한 후 택시를 모는 그에게 그녀는 때때로 멍든 얼굴로 나타나 능력은 없지만 자상한 남편을 얘기하며 울었다. 하룻밤 그에게 안겼다 아침을 맞은 그녀는 그의 품에서 한없이 울다가 해가 중천에 떠서야 발길을 돌리곤 했다. 그렇게 십 년이 흘렀다는 얘기였다.

“한 달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 합니다. 초기라서 다행이지요.”

말을 마칠 때까지 박 기사가 룸 미러로 확인한 사내는 처음 자세 그대로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박 기사는 익숙한 레퍼토리를 쏘아냈다.

“내일, 그녀를 만납니다. 주위에선 저를 보고 다들 미쳤다고 하지요. 낯살이나 처머서 뭐하는 짓이냐고, 뒤편 병신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도 압니다. 손님, 손님이 보시기에도 제가 이상한 놈입니까?”

대답은 기대도 하지 않았다는 듯이 박 기사는 룸 미러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하-, 몇 동으로 모실까요?”

“뒤로 돌아주세요.”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내가 불쑥 말을 받았다. 박 기사는 의외라는 얼굴로 룸 미러를 봤다. 사내는 치킨 봉투를 부여잡고 고개를 세워 차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에 사내의 머리칼이 다소곳이 흔들렸다. 밖에서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도 튀김 기름 냄새와 술 냄새, 페인트 냄새가 어우러진 차내의 공기를 정화시켜 주지는 못했다. 아니, 오히려 유입돼 들어오는 공기의 신선함 때문에 무뎠지는 코의 감각이 되살아나 악취가 더욱 심하게 느껴졌다.

아파트 단지를 돌자 길게 드리우는 전조등 불빛 앞에 허름한 가옥들이 줄줄이 모습을 드러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사내가 차문을 열었다.

“전화를 하시지요. 사모님께서 수고하시는 게 나를 뚫습니다.”

“아이가 깽까봐요.”

사내는 치킨 봉투를 부여안고 차에서 내려다. 박 기사는 차를 돌리는 척 하며 사내의 발길 따라 전조등을 비췌다. 아파트 담에 붙은 가로등 불빛은 조명 역할을 하기에는 사내로부터 너무 멀었다. 사내의 앞, 다닥다닥 붙은 가옥 가운데 하나에서 불빛이 켜졌다. 택시 소리와 전조등 때문에 사내의 아내가 잠에서 깬 모양이었다. 아니면 남편을 기다리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아낙이 몸을 일으키느라 불을 밝혔는지도 몰랐다.

사내의 모습이 집안으로 사라진 즈음, 박 기사는 핸들을 돌렸다. 룸 미러를 거쳐 뒷유리를 지나 손에 지폐를 든 사내가 비틀거리며 다가서는 모습이 보였다. 박 기사는 쫓기는 사람처럼 가속 페달을 밟았다. 민원 가까운 택시비가 사내나 그의 가족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운 사람을 만난다는 설렘 때문인지는 몰라도, 박 기사는 룸 미러로 보이는 불 켜진 집이 차창의 차단막에 걸리지 않은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동 정

수 상

▲金貞植(전자공학48-56 대덕전자 회장·본회 부회장)= 지난 10월 11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로부터 제24회 仁村賞(산업기술부문) 수상.

▲許文會(농학48-54 모교 식물생산과학부 명예교수)=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으로부터 올해의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선정대상자로 선정.

▲金聖佑(정치53-57 前한국일보 논설고문)= 지난 10월 1일 통영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제10회 통영시 문화상(예술 부문) 수상.

▲金芝河(미학59-66 동국대 석좌교수·시인)= 오는 11월 5일 경암교육문화재단으로부터 제6회 경암학술상(예술부문) 수상.

▲金寅中(회화59-63 재불 화가·신부)= 최근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문화예술훈장인 '오페리예' 수훈.

▲李哲雨(농경제61-65 롯데백화점 사장)= 지난 9월 16일 보건복지부와 아이낳기 좋은세상운동본부 공동 주최한 제1회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

▲南 鏞(경제69-76 LG전자 부회장)= 지난 9월 3일 제34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금탑 산업훈장 수훈.

▲李基秀(대학원70-72 고려대 총장)= 지난 9월 24일 서울 성북동 독일대사관에서 독일연방공화국 대입자공로훈장 수훈.

▲吳載鎬(기상72-76 부경대 교수)= 최근 환경·해양 분야 학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재단법인 약수학술진흥회로부터 제1회 약수학술상 수상.

▲李光熙(원자핵공학79-83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오는 11월 5일 경암교육문화재단으로부터 제6회 경암학술상(공학 부문) 수상.

▲趙敏行(화학83-87 고려대 교수)= 오는 11월 5일 경암교육문화재단으로부터 제6회 경암학술상(자연과학부문) 수상.

▲趙允旋(외교84-88 국회의원)= 지난 8월 31일 국제백신연구소 후원의 밤 행사에서 '세계 아동백신지원을 위한 자선음악회' 사회에 대한 감사패 수상.

▲盧基太(AMP 27기 부산항만공사 사장)= 지난 9월 7일 부산시 아동복지협회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산지부로부터 감사패 수상.

▲金宗圭(AMP 29기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지난 9월 15일 재단법인 고운문화재단으로부터 제21회 고운문화상(문화예술인상부문) 수상.

▲李采郁(AMP 54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지난 9월 16일 보건복지부와 아이낳기 좋은세상운동본부 공동 주최한 제1회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

▲盧民基(ACAD 50기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지난 9월 3일 몽골 국가전문간독원으로부터 몽골 국가감독 우수 훈장 수훈.

▲鄭熙仙(ACAD 58기 국립과학사연구원장)= 지난 9월 29일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부터 제10회 비추미여성대상 별리상(교육 및 연구개발부문) 수상.

▲孫京植(법학57-61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본회 부회장)= 지난 9월 9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민간위원회에 위촉.

▲徐丙喆(독문59-63 지오디스윌스코리아 회장)= 지난 9월 15일 미국 국무부 후원 교류프로그램 참가자 모인인 사단법인 한미비전협회 이사장에 취임.

▲柳旺熙(경제59-63 이화여대 명예교수)= 지난 9월 16일 통역자원봉사단체인 사단법인 BBB코리아 회장에 선출.

▲金泳吉(금속공학60-64 한동대 총장)= 지난 9월 14일 임기 2년의 한국공학 교육인증원 원장에 취임.

▲李泰鎭(사학61-65 모교 국사학과 명예교수·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지난 9월 28일 국사편찬위원회 제17대 위원장에 임명.

▲尹鎬一(법학61-65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지난 9월 16일 아시아경쟁연합(ACA) 초대 회장에 선출.

▲吳 明(전자공학64-66 前건국대 총장·본회 부회장)= 지난 9월 1일 웅진그룹 고문 겸 태양광에너지 회장에 선임. 8일 한국과학기술원 이사장에 선임.

▲鄭明洙(미학64-71 前UPS 한국대표·인하대 겸임교수)= 최근 물류산업연구원에 위촉되었으며, 인하대 물류대학원 글로벌 물류비즈니스 최고경영자과정 주임교수에 임용.

▲尹桂燮(상학64-68 모교 경영학과 교수·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회장)= 최근 한국투자공사(KIC) 운영위원장에 선출.

▲韓博成(국문66-70 前한국방송기자클럽 사무총장)= 지난 9월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에 위촉.

▲姜智遠(정치68-72 법률사무소 청지 고문변호사·나눔플러스 총재)= 지난 9월 5일 아시아기자협회 이사장에 선임.

제41대 국무총리에 金滉植동문

李明博대통령은 지난 10월 1일 제41대 국무총리에 金滉植(법학67-71)감사원장(사진)을 임명했다.

鄭雲燦(경제66-70)국무총리의 사퇴와 金台鎬(농업교육80-85)총리 후보자의 낙마 이후 후임 새 총리가 임명됨에 따라 현 정부의 국정운영이 제 궤도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 장성 출신인 金滉植국무총리는 전형적인 법관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시작,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광



주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05년 대법원 대법관에 올랐다.

2008년 7월 대법관 임기 절반을 남겨두고 감사원장에 발탁됐고, 다시 감사원장의 임기 절반을 지나 총리로 임명됐다. 지난 7월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車美禮(영문68-72 前세계일보 논설위원)= 지난 9월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에 위촉.

▲金仁圭(정치69-73 KBS 사장·한국방송협회 부회장)= 지난 9월 9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

▲金暎世(응용미술70-74 이노디자인코리아 사장·국가경쟁력강화위원)= 최근 상명대 디자인대 석좌교수에 임용.

▲玄珪錫(경영70-74 한국개발연구원장·국가경쟁력강화위원)= 지난 9월 9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

▲李炯根(전기공학71-75 前기아자동차 유럽법인장·해외총괄 사장)= 지난 9월 7일 기아자동차 부회장에 선임.

▲金明洙(약학71-7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외부원장)= 지난 9월 7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부원장에 선임.

▲金周彦(화학72-79 언론광장감사)= 지난 9월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에 위촉.

▲鄭琪榮(경영72-76 삼성경제연구소 사장·국가경쟁력강화위원)= 지난 9월 9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

▲李惠煥(화학73-77 서강대 교수)= 지난 9월 10일 임기 1년의 대한화학회 제46대 회장(2012년)에 당선.

▲曹文鉉(법학73-77 법무법인 두우 변호사)= 지난 9월 24일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제18차 총회에서 회장에 선출.

▲南善顯(대학원77 前KBS미디어 대표)= 지난 9월 6일 중앙미디어네트워크(JMnet) 방송담당 사장에 선임.

▲具本俊(계산통계74-78 前LG Philips LCD 부회장·LG 상사 부회장)= 지난 10월 1일 LG전자 부회장에 선임.

▲李仁馥(법학74-78 前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前춘천지방법원장)= 지난 9월 3일 임기 6년의 대법원 대법관에 취임.

▲金正基(사회교육74-78 前청와대 교육비서관)= 지난 9월 27일 임기 3년의 한국교직원공제회 제18대 이사장에 취임.

▲許英燮(지리교육74-78 前경향신문 논설위원·한국언론인연합회 이사·본보 논설위원)= 지난 9월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 광고특별위원회에 위촉.

인 사

행 사

▲李孝秀(대학원78졸 영남대 총장·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지난 9월 10일 대구 경영자총협회 고문에 위촉.

▲李載桓(법학75-79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지난 9월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특별위원회에 위촉.

▲朴在泳(경제75-82 행정안전부 소정심사위원회 상임위원)=지난 9월 14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자치비서관에 내정.

▲吳尙錄(전자공학76-8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로봇·시스템본부장)=지난 9월 7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외부원장에 선임.

▲趙成仁(농공학77-84 모교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교수)=지난 9월 15일 모교 SNU-Valley사업단장에 선임.

▲柳 津(영문78-83 풍산 회장)=지난 9월 9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銅산업 협의회(IWCC) 총회에서 제29대 회장에 선출.

▲崔敎貴(법학78-82 前법무법인한맥 변호사·서울시립대 교수)=지난 9월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특별위원회에 위촉.

▲金容煥(무역78-82 기획재정부에 산총괄심의관)=지난 9월 7일 청와대 정책기획관실 국정과제비서관에 임명.

▲白雲鉉(행대원78-85 前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지난 9월 27일 행정안전부 소정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

▲李昇勳(경영79-83 前한중교류협회 사무차장·대불대 교수)=지난 9월 7일 대불대 제8대 총장에 취임.

▲李春熙(행대원79-85 새만금군 산경제자유구역청장)=지난 9월 13일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에 취임.

▲洪享寬(불문80-86 前MBC 사회부장·사업센터 국내사업부장)=지난 9월 27일 MBC 보도국 부국장에 선임.

▲張虎鎭(외교80-84 前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 부단장·북미국장)=지난 9월 9일 주캄보디아 대사에 임명.

▲徐泰烈(지리교육80-84 고려대 입학처장)=지난 8월 14일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제25대 회장에 선출.

▲李明魯(행대원85졸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지난 9월 20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 임명.

▲張成豪(행대원85졸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지난 9월 24일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공항행정정책관에 임명.

▲徐正協(국제경제83-87 前서울시 인재양성기획반장)=지난 9월 26일 서울시 대변인 언론행정담당관에 임명.

▲金一平(토목공학83-87 국토해양부 지역발전위원회 지역개발국장)=지난 9월 24일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임명.

▲李定燮(사법83-87 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지난 9월 24일 청와대 대통령실 녹색성장환경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임명.

▲林炳朱(행대원87졸 前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기획조정관)=지난 9월 15일 법제처 차장에 임명.

▲睦榮晚(행대원85-92 前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행정안전부 차관보)=지난 9월 6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

▲이난영(영어교육89-93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지난 9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장에 임명.

▲裴景銀(제약89-93 前노바티스 항암제 사업부 글로벌 생산책임자)=지난 9월 7일 쥘자임코리아 대표에 선임.

▲邊正朱(AMP 40기 前한라중공업 사장·만도 사장)=지난 9월 27일 한라그룹 자동차부문 부회장에 선임.

▲徐泳泰(AMP 48기 前현대오일뱅크 사장)=최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전통예술 최고경영자과정 주임교수에 임용.

▲金洪斗(AMP 53기 前한라창업투자 감사·한라건설 사장)=지난 9월 27일 한라그룹 부회장에 선임.

▲鄭明哲(AMP 64기 한국지멘스 플랜트사업본부 부사장)=지난 10월 1일 한국지멘스 철도사업 본부장에 선임.

▲全載弘(AIP 17기 前극동해운 회장·바이오하이테크 회장)=최근 휴먼네트웍그룹 대표이사에게 취임.

▲李相睦(AIP 35기 前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지난 9월 3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에 선임.

▲朴容周(HPM 13기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지난 9월 20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에 임명.

▲韓美淑(SPARC 13기 헤리트 대표)=지난 9월 13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중소기업비서관에 임명.

▲李吉女(의학51-57 경원대 총장·가천의대 길병원 이사장·본회 부회장)=지난 10월 2일 '가천의대 길병원 암센터 개원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 또 15일 경원대에서 비전타워 오픈 및 세상마을 축하행사 개최.

▲李海遠(행정51-55 한국우드워드 회장·九法會長·본회 부회장)=지난 9월 30일 관광버스로 새만금 및 來蘇寺 등을 관람하면서 법대9회 정기총회를 열어 서 회제가 됨.

▲權赫昇(상학53-57 前서울경제신문 사장·백교문학회장)=지난 10월 1일 강릉시 한대리마을 淸母亭시비공원에서 제1회 백교문학상 시상. 첫 대상 수상작은 조영민 시인의 詩 '종신형'.

▲姜信杓(사회55-59 인제대 명예교수)=지난 9월 5~7일 중국 북경 언론신문방송대학 국제회의에서 '서울올림픽과 세계 TV중계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 발표.

▲俞東濬(잠사56-60 부운장학회 이사장·晶月 羅 蕙錫기념사업회장·수원지부동창회장)=지난 9월 17일 한·아세안센터에서 열

린 피델 라모스 前필리핀 대통령 특별강연회에 참석.

▲尹明老(회화56-60 모교 서양화과 명예교수·대한민국예술원 회원)=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베이징 국립중국미술관 초대 개인전 개최.

▲李在昌(법학56-60 새마을운동중앙회장)=지난 9월 3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새마을운동 40년 성과와 21세기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 개최.

▲張水榮(전기공학57-61 前포스텍 총장)=지난 12년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개한 교육칼럼을 모아 '선진국으로 가는 길'(학문출판) 출간.

▲金新顯(회화58-62 경북과학대학 특임교수)=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서울아트센터 공평갤러리에서 월간 미술세계 기획초대전 개최.

▲宋丙洛(경제59-63 모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본보 논설위원)=최근 한국경제교과서 '한국 경제의 길-독창적 모델을 찾아서'(박영사) 제5판 출간.

▲元佑鉉(행정61-65 고려대 명예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최근 한국의 홍보전략 사례를 담은 영문판 'Public

Relations Strategy'(커뮤니케이션북스) 발간.

▲鄭正佶(행정61-65 前정와대 대통령실장·모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최근 '전문가들이 본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중도실용을 말한다'(랜덤하우스) 출간.

▲趙在吉(사회교육61-66 미국 세리토스시장)=지난 10월 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성금담을 담은 회고록 '소명' 출판기념회 개최.

▲陳善柱(대학원62-69 충북대 명예교수)=최근 제임스 조이스의 원작인 '더블린 사람들'(문학동네)을 번역 출간.

▲金勳東(농학63-69 수원예총 회장)=지난 10월 1일 수원시 캐슬호텔에서 칼럼집 '무슨 재미로 사나요?' 출판기념회 개최.

▲劉修一(교육69졸 전주교 군중교구장 주교)=지난 9월 15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김대건성당에서 서품식 개최.

▲金錫俊(토목공학69-73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지난 9월 29일 '계량정보 분석을 이용한 G20 국가의 녹색기술 현황분석'을 주제로 제319회 과학기술정책포럼 개최.

▲金範鎰(경영69-73 대구시장)=지난 9월 20일 대구시 달서구

서남신시장에서 시청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개최.

▲金光宇(경제69-73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지난 9월 25일부터 6일간 아부다비와 파리, 런던을 방문, 글로벌 공동투자 및 협력 방안 논의.

▲金永龍(금속공학70-74 한국경제연구원장)=지난 8월 19~20일 제주도 해비치호텔에서 시장경제교육 감사진 워크숍 개최.

▲裴仁俊(철학70-74 동아일보 주필·한국신문방송 편집인 협회장·본보 논설위원)=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李明博정부의 교육정책'을 주제로 '2010 편협 사회부장 세미나' 개최.

▲朴良浩(지리71-75 국토연구원장)=지난 9월 30일 개원 32주년을 기념해 '사회통합과 도시·지역 발전'을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安炳燦(신대원71-75 언론인권센터 이사장·본보 논설위원)=지난 9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이용자를 위한 유료 방송서비스 없나요?'를 주제로 제31차 언론인권포럼 개최.

▲柳一相(신대원72-7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장)=지난 8월 27일 중앙대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주제로 제6회 전국대학생토론회 개최.

▲徐載鎭(사회75-82 통일연구원장)=지난 9월 1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분단 관리에서 통일 대비로'를 주제로 학술회의 개최.

▲金昌大(교육79-83 모교 교육학과 교수·교육연구소장)=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모교 호암컨벤션센터에서 제11회 교육연구 국제학술대회 개최.

▲鄭汎周(경제79-83 성균관대 교수·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지난 8월 28일 모교 생활과학대학에서 하계 학술회 개최.

▲金在美(기악84-88 건국대 교수)=지난 9월 10일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피아노四季-가을 Espressivo'를 주제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李塚弼(행대원83-87 고용노동부 차관)=지난 9월 16~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아태경제공동체 인적자원개발장관 회의에서 21개 회원국 장관들과 경제·고용위기의 대처방안 논의.

▲金亨燦(기악91-95 TIMF양상블 멤버·바수니스트)=지난 10월 11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독주회 개최.

▲裴杞政(기악91-95 서울클래시컬 플레이어즈 수석·첼리스트)=지난 10월 5일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콘서트 개최.

▲李尙恩(기악93-97 부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수석·플루티스트)=지난 10월 9일 서울 여의도동영산아트홀에서 독주회 개최.

■ 삼가 명복을 빕니다 ■

- ▲金東漢(토목공학45-48 前대한토목학회 회장)=9월 24일 별세(87세)
- ▲金澤永(화학50졸 서강대 명예교수)=9월 5일 별세(85세)
- ▲趙鏞結(기계공학48-52 前인하대 교수)=9월 12일 별세(82세)
- ▲金正澈(건축52-56 정림건축 명예회장)=9월 27일 별세(78세)
- ▲金東龍(수의52-56 동화농산 대표)=9월 30일 별세(78세)
- ▲申弘均(교육53-57 前인천시 교육감)=9월 5일 별세(77세)
- ▲元致奎(의학58졸 한양대 명예교수)=9월 7일 별세(77세)
- ▲李壽任(지리교육59-63 前서울사대부고 교장)=9월 14일 별세(70세)
- ▲韓文盛(치의학75-81 극동치과 원장)=9월 25일 별세(55세)
- ▲金永光(ACAD 10기 前국회의원)=9월 13일 별세(79세)

'동정'란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e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naver.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신 간

■ 법치와 자유

— 鄭城鎮 지음



국민대 총장, 부패방지 위 원 장, 법무부 장관 등을 지낸 국민대 鄭城鎮 (법 학 58-63) 명예교수가 법치와 자유의 원칙과 가치를 모색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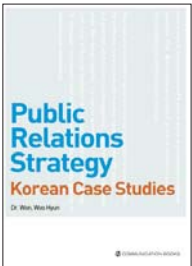
‘법치’는 우리 사회가 선진화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지향하고 정착시켜야 할 원칙이고, ‘자유’는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끊임없이 찾고 추구하는 가치이다.

이 책에는 鄭동문이 검사생활을 떠나 대학과 반부패 또는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정부기구에 몸담았을 동안 집필한 논문과 관례평석, 대담, 시론 및 칼럼 그리고 법조와 대학주변의 현안 등에 관련한 에세이 등이 실렸다. (박영사刊·값20,000원)

■ Public Relations Strategy

: Korean Case Studies

— 元佑鉉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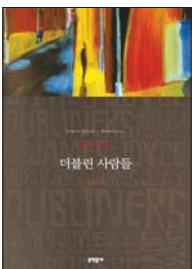


고려대 명예 교수이자 미국 UCSD 및 KDI국제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인 元佑鉉 (행정 61-65) 동문이 한국의 PR커뮤니케이션 전략 사례를 영문으로 소개했다.

기업과 조직을 고용, 소비자, 미디어 관점에서 분석해 효율적인 홍보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위기관리를 고려해 상황별, 사례별 다양한 대응 전략을 보여준다. 非전공자도 현장 문제를 전문가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PR관리의 기초 이론을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커뮤니케이션북스刊·값35,000원)

■ 더블린 사람들

— 陳善柱 옮김



충북대 陳善柱 (대학원 62-69) 명예 교수가 제임스 조이스의 원작 ‘Dubliners’를 번역 출간했다.

제임스 조이스의 첫 단편집인 이 작품은 조이스의 후기 작품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의 토대가

된 실험적인 작품이다. 정신,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마비된 아일랜드의 도시 더블린. 이 도시의 일상생활의 양상은 모두가 불쾌하고 가엾고 품위없는 것들 뿐이다. 외부적으로는 현실적인 강제와 내면적으로는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 무기력하고 마비된 삶을 살아가는 더블린 사람들의 모습을 핵심 주제로 삼고 있다.

총 15편의 단편으로 이뤄진 이 책은 더블린에 살았던 증산층의 삶을 통해 더블린 전역에 퍼져 있는 정신적, 문화적, 사회적 병폐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인간 본성에 대한 치열한 탐구를 바탕으로 인류 보편의 문제를 재조명한 작품으로 평해진다. (문학동네刊·값12,000원)

■ 당신을 부르며 살았다

— 馬鍾基 지음



1959년 현대문학에 시 ‘해부학교실’ 등을 발표하며 문단에 등단한 이후, 삶과 죽음을 오가며 겪는 아프고 쓸쓸한 체험을 따뜻하게 감싸안는 시를 써온 馬鍾基 (대학원 66졸 연세대 의과대학 초빙교수) 동문의 詩作 에세이.

馬동문이 그동안 써온 시 중에서 50편을 엄선했다. 그것과 관련된 50편의 에세이를 덧붙였다. 분석이나 해석을 담기 보다는 시마다 그것을 썼을 때의 생각과 상황,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을 평이하게 설명하고 있다. 삶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살았으나, 언제나 시민권은 모국어로 쓰면서 투명한 서정의 언어를 내뿜어온 馬동문 교유의 시 세계를 엿보게 된다. (비재刊·값11,500원)

■ 지도자의 화법

— 朴景賢 지음



지도자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자질 가운데 하나인 화법에 관한 책을 경찰대 朴景賢 (국어 교육 64-68) 교수가 펴냈다.

한국화법학회장을 역임한 차동문은 요즈음 한국 사회의 일부 지도자들은 구성원들이 가까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충고한다.

또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바라는 언어 행위는 기본적으로 ‘말’보다는 ‘사람’에 중심을 두고, 말하는 이의 ‘사람됨’을 중요시한다며 지도자의 언어 행위는 최소한의 품위나 품격이 담겨 있어야 하고,

말은 유창하게 ‘잘’ 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도서출판 역락刊·값35,000원)

■ 생명의 화학, 삶의 화학

— 金熙濬 외 지음



모교 화학부 金熙濬 (화학 66-70) 교수가 金秉文 (화학 75-80)·金聖根 (화학 76-80)·申錫敏 (화학 81-85) 교수와 더불어 화학의 핵심을 논리적·체계적으로 다뤘다.

화학은 누가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과학의 한 분야가 아니고 인간이 자연의 언어를 파악하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우주와 생명의 비밀을 파헤쳐나간 과정의 기록이다. 이 책에서는 화학의 발전 과정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인간적인 노력을 엿보는 과학사적 측면을 강조했다. 멘델레예프, 파킨, 플링, 왓슨 등 과학자들의 일화를 통해 무엇인가 생의 교훈을 배울 수 있다면 일석이조가 될 것이다. (자유아카데미刊·값38,000원)

■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 李憲稔 엮음



고려대 경제학과 李憲稔 (경제 74-78) 교수가 모교 경제학부 李榮薰 (경제 70-78) 교수, 성신여대 朴基柱 (경제 78-82) 교수, 전남대 金載昊 (경제 82-86) 교수, 성균관대 朴二澤 (경제 83-87) 교수, 모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曹永峻 (경제 94-01) HK연구교수 등과 함께 펴낸 조선왕조시대에 관한 연구총서.

이 책은 조선후기 거시적 경제 구조를 재정과 시장을 기본 요소로 하는 경제체제론으로 파악한다. 재정과 시장이 조선후기 경제를 통합하는 2대 배분기구였기 때문이다. 재정 중에서도 중앙 재정, 그리고 시장 중에서도 서울 시장을 위주로 다룬다. 중앙재정과 서울 시장이 지방 재정과 지방 시장보다 풍부하고 정비된 자료를 제공하며 경제체제의 해명에 핵심적인 의의를 가지기 때문이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38,000원)

■ 한국인을 위한 경제학

— 李 根 지음

모교 경제학부 李 根 (경제 79-

공 연

■ 鄭修安 플루트독주회

— 10월 23일 예술의 전당

추계예대 겸임교수인 플루티스트 鄭修安 (기악 90-94) 동문 (사진)이 10월 23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Eclat 단원으로 활동



중인 鄭동문은 이날 바르토크, 피아졸라, 루터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 기획 586-0945)



83) 교수가 2001년에 펴낸 경제학 교양서의 개정판.

이 책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대해 소개하고, 이것이 한국경제에 가지는 의미를, 왜 한국이 또 한번 휘청거렸는가, 이런 위기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정책 및 시스템상의 변화가 필요한지를 기술했다.

또 1997년 외환위기 때와 이번 위기 때에 판이하게 다른 한국형 대기업 즉, 재벌에 대한 재평가를 다뤘다.

마지막으로 영미식 경제운용 방식을 후발국들에게 처방한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가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성과를 못내고 퇴각하는 상황을 반영해,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논쟁과 대안적 정책 처방의 모색을 담았다. (박영사刊·값18,000원)

■ 다문화사회 일본과

정체성 정치

— 權肅寅 엮음



모교 인류학과 權肅寅 (인류 81-85) 교수가 국제대학원 韓榮惠 (영어 교육 80졸) 교수, 일본연구소 趙아라 (지리 96-00) HK연구교수, 광운대 金白永 (사회 88-92) 교수 등과 함께 복수의 문화와 정체성이 충돌하고 협상하는, 역동하는 현대 일본사회를 조망한 책.

이 책은 지난 20여 년간 급속하게 진행된 일본사회의 ‘다문화’와 ‘정체성 정치’를 고리로 현재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일본사회의 여러 ‘현장’과 ‘역학’을 소개한다.

또 다문화화·다민족화가 일본 사회에 제기하는 도전과 과제, 대응방식 등을 고찰하고, 지구화가

일본사회에 미친 영향과 역학의 함의를 검토한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18,000원)

■ 나 없이 절대 고치지마

— 金炳鍵 지음



성형외과 전문의 金炳鍵 (의학 84-88 BK동양 성형외과 원장) 동문이 직접 밝히는 성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 책은 자신감이나 아름다움, 그리고 치료 등을 위해서 성형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고려해야 할 지점을 담고 있다. 아울러 안전하게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정확히 알아보고 따져봐야 할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특히 제3부에서는 부위별 성형을 완전 정복하고 있다. 눈, 코, 가슴, 주름, 엉덩이, 종아리, 그리고 얼굴형 등으로 나눠서 소개한다. 사례별로 사진과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이끌고 있다. (동아일보刊·값13,000원)

■ 韓英佛敎辭典

— 黃南周 외 지음



IT멘토협의회장을 지낸 黃南周 (물리 87-92 원광대 한의예과 재학) 동문이 동국대 고영섭 교수와 함께 한영불교사전을 출간했다.

이 책은 한글로 된 불교용어, 불교문화, 불교인명을 한자와 영어로 표현하고 관련된 표제어 1만여 개를 담아 수록했다. 또 ‘중국어 불교용어집’을 한글 표제어 순으로 바꾸고, 동시에 한국불교에 관한 새로운 표제어 3백여 개를 작성하고 영역해 보충했다. (신아사刊·값40,000원)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2010년 8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10. 8. 21 ~9. 13) · 일반(10. 8. 21 ~9. 13)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부회장 金宗鎬= 50만원
△부회장 鄭夢準= 1백만원

상임이사

△朴孟浩 차대동창회장= 20만원

평생회비

(이사) △강성일 AMP62
△강승구 GLP14 △권혁복 미대82
△김대식 공대73 △김동욱 의대78
△김동홍 SPAR12 △김미경 AFB8
△김미나 의대83 △김사철 상대55
△김상권 공대66 △김일수 문리65
△김주형 법대86 △김중겸 AMP64
△김진호 법대57 △김형종 의대76
△김혜원 미대80 △남유진 인문72
△노선숙 생활85 △박대근 保院63
△박명권 농대86 △박몽용 ACPM2
△박성표 문리70 △박양수 의대83
△박은숙 의대74 △박찬문 大院74
△박하영 공대75 △방기석 SCS14
△백형기 사회80 △변종오 공대77
△서명덕 미대71 △성노현 의대73
△송진호 상대51 △양점식 공대78
△어길수 공대78 △오성진 차대72
△오세훈 사회90 △오제환 공대76
△윤여찬 AIP34 △은세운 의대72
△이 석 공대80 △이갑노 의대65
△이경창 법대79 △이근석 공대72
△이병욱 ASP10 △이상철 문리69
△이수근 농대64 △이영만 AMP54
△이몽민 HPM23 △이원희 생활82
△이정민 GLP16 △이창복 문리58
△이철근 공대58 △이학숙 미대54
△이형근 HPM17 △임수진 ACAD56
△임진호 의대73 △전우수 사대69
△정덕진 AFB7 △정미향 음대81
△정윤철 공대72 △정제택 공대74
△정홍화 법대81 △조남희 공대77
△조상근 법대69 △조선형 AMP61
△조성인 농대77 △조성태 SCS2
△주정대 經院90 △최거훈 법대76
△최광순 농대71 △최리나 의대82
△최성숙 미대64 △최진만 상대65
△최태희 공대85 △한기세 음대67
△한화갑 문리59 △황태인 공대71
△황호영 공대58

(일반) △강영석 ACAD38
△고병준 SCS22 △고희정 생활87
△구본천 사회83 △기세만 AMP46
△김경철 인문98 △김광명 공대58
△김대원 공대01 △김모세 공대02
△김박명 공대60 △김보경 AFB8

△김성규 문리54 △김영목 음대77
△김영희 AFP1 △김용술 상대56
△김원동 의대63 △김유경 약대56
△김재요 공대94 △김종배 大院76
△김진태 미대53 △나종전 약대82
△노은경 음대06 △노채균 공대57
△노치숙 사대53 △박경호 GLP20
△박규태 사대54 △박성환 경영80
△박세호 공대92 △박수훈 차대79
△박원동 ACAD67 △박인철 AFB8
△박진호 공대90 △박찬목 상대54
△방용수 SPAR16 △배지영 의대94
△백갑중 ACAD52 △백옥윤 AIP41
△설성화 약대63 △송은영 의대92
△송지훈 법대89 △신 협 문리61
△신순철 공대79 △안정선 문리67
△엄관식 수의83 △유내형 ACAD17
△유석원 법대82 △이경운 AMP67
△이나미 의대81 △이다미 공대04
△이보미 사회05 △이상훈 의대95
△이선재 AIP42 △이성준 음대01
△이성호 사회85 △이순환 간호82
△이영주 공대04 △이용국 차대77
△이원해 AIP15 △이재훈 자연03
△이종산 약대71 △이호종 사회85
△장명숙 간호64 △전명에 문리62
△정경전 의대66 △정상환 법대83
△정수인 생활99 △정승혜 사회82
△정신윤 AMP8 △정영훈 공대01
△정용기 GLP14 △정준모 인문98
△정장근 약대64 △정학수 SPAR16
△정희영 인문83 △조두영 의대55
△조용애 간호80 △조윤신 법대76
△차미희 環院06 △최수희 법대95
△최영선 생활71 △최윤서 법대04
△최종길 법대83 △한문희 의대72
△허상만 AFP1 △홍문표 수의63
△황찬호 의대89

이 사

◆인문대 △강은봉79 △강창일71
△김광현76 △김동철78 △김종서72
△류 진78 △문상원72 △박태영74
△배준동79 △손예철69 △오세중79
△오정택82 △이동근76 △이숙희80
△이택기75 △임운봉64 △임윤택72
△최규식73 △최태영76 △허영재77
△홍성윤73 △홍종선75
◆사회대 △강동호82 △김광녕82
△김대희81 △김수영82 △김익성75
△김찬규76 △김창수73 △김형민76
△노정석87 △노택선79 △박경재74
△박동영81 △박성희75 △박재완73
△박재하77 △박흥배87 △박희영80
△변성윤91 △손도일86 △손영준89
△신철식73 △유두선83 △이건희73
△이승훈74 △이주형72 △임규옥79
△임유철84 △임유철84 △장원영72
△전승철81 △전홍찬79 △조병철73

△조성원88 △조현래73 △주진혁77
△차명진79 △최금락76 △최영선77
△최익순73 △한병송85 △홍석규75
△황기호77
◆자연대 △강인숙83 △금종해76
△김 윤68 △김규중72 △김남수73
△김양진83 △박종희82 △송세안75
△엄원근77 △유건호78 △이경수75
△이병홍66 △이상욱83 △이창복68
△이철의75 △이현식73 △장대연74
△장만재80 △전덕영72 △전승준74
△정명식80 △정철희75 △최영욱84
△최종권75 △한창우75 △현택환83
△홍광현77 △홍범준83
◆간호대 △김명숙61 △김미애82
△김진정73 △박선애73 △방경숙81
△성승현74 △성순희71 △이선자61
△이윤경65 △허 영74
◆경영대 △구지일86 △기준능80
△김명관82 △김상범78 △김선구73
△김성균82 △김수환82 △김영기73
△김종환92 △김확식76 △박기준85
△박기환69 △박훈기81 △반응음77
△변동범91 △서정희78 △송영태69
△신용삼73 △안수현77 △오정구74
△유태우79 △이영민83 △이윤호73
△이인철87 △이재영78 △이주세83
△이호선75 △임근상80 △진영근75
△채경목86 △하태형78 △황수연72
△황수영80
◆공대 △강경일75 △강구선63
△강남식73 △강명순40 △강승구71
△강의철73 △강준우76 △강희태58
△고갑석70 △고시영71 △고영주67
△곽삼영51 △권상철74 △권오선79
△권익현69 △기중식77 △김계환82
△김경배68 △김경웅83 △김경호75
△김광욱56 △김광욱62 △김교성51
△김국호65 △김노수45 △김대모61
△김대하70 △김덕재54 △김도심52
△김동성73 △김동진68 △김동필76
△김명근53 △김명식74 △김명수73
△김명호74 △김문경61 △김병열72
△김병욱76 △김상훈80 △김선복62
△김성년68 △김성철70 △김성철73
△김성환66 △김신원64 △김영식66
△김영중76 △김원배55 △김유환62
△김윤규62 △김윤수75 △김인상67
△김인준68 △김제영71 △김종식77
△김종의59 △김주호58 △김진영68
△김진원68 △김진의64 △김창석65
△김철수70 △김태문70 △김태원55
△김태준57 △김태형78 △김학제65
△김한섭68 △김항준73 △김형남60
△김호용72 △김홍식76 △나원수80
△남영민71 △노병환76 △노태욱69
△문영학65 △문찬국73 △문희성57
△박경배67 △박노상57 △박병국82
△박병학69 △박상호76 △박승훈72
△박영길78 △박용준52 △박우규70

△박의승73 △박인균75 △박일재78
△박재기52 △박종택48 △박준창47
△박진수70 △박찬빈60 △박찬호57
△박창규70 △박창호65 △박태권55
△박태훈78 △박호건69 △박화규77
△박황호65 △박흥철51 △배무현72
△배재흠70 △배충식81 △백명철79
△백승욱58 △백승한71 △백형배47
△변동필75 △변영삼77 △변응현66
△서남규69 △서동원70 △서두석71
△서문호68 △서일홍73 △서형상71
△선석문68 △선우중호59 △설영화65
△설원길48 △설재훈74 △성기초51
△성낙현67 △손경업65 △손석광75
△손종권71 △송배원75 △송부호61
△송우길84 △신건일63 △신근식66
△신덕철68 △신동주79 △신원기66
△신윤승74 △신창수81 △신희승71
△안산신69 △안재휴52 △양 갑68
△양배근82 △양현승58 △어성준67
△염사연64 △오성환59 △오창석69
△오화석51 △옥영석78 △우상룡72
△우진태79 △원정수53 △원종환52
△유기춘65 △유병철42 △유승준63
△유재운78 △윤 백78 △윤근노62
△윤병화58 △윤석구53 △윤조덕69
△윤준도75 △윤팔문57 △이강우79
△이건우74 △이계수63 △이계환62
△이관수68 △이근명63 △이능규69
△이명호53 △이문희65 △이범호54
△이병락68 △이병하69 △이봉주67
△이봉환68 △이상엽82 △이상준64
△이선계65 △이성오78 △이성원58
△이성팔72 △이승기70 △이승종70
△이여종68 △이영길74 △이영우79
△이영재69 △이영한76 △이원우78
△이윤표77 △이장무63 △이재홍72
△이정만70 △이정일61 △이종남73
△이종현47 △이종호59 △이주선64
△이준혁85 △이종성61 △이종재64
△이종호70 △이진우80 △이창갑46
△이창호55 △이청룡61 △이충덕69
△이태동64 △이태수77 △이한배60
△이한정81 △이홍원66 △이환범56
△이환렬75 △이효일62 △이희승60
△임근목83 △임기석63 △임민수66
△임승진71 △임주환68 △장광환78
△장기욱53 △장원일73 △장지영75
△장진양67 △전도영80 △전상백53
△전석원83 △전웅진64 △전재수81
△정구충68 △정성환77 △정순천66
△정익주68 △정재근74 △정재영70
△정조섭56 △정주희75 △정철수71
△정태영75 △정호균69 △조규남72
△정조섭56 △정주희75 △정철수71
△정태영75 △정호균69 △조규남72
△조덕상66 △조두현76 △조명호78
△조백현85 △조선희50 △조유근67
△조응수74 △조장현64 △주기태69
△지 순54 △지인호76 △진영춘67
△차금렬59 △최 연68 △최기언71
△최낙삼77 △최무혁67 △최병홍78

△최상오63 △최상호64 △최수현65
△최순철39 △최영식50 △최재열69
△최정욱49 △최형순65 △편도권54
△하준환51 △한도석78 △한상대70
△한상명78 △한영호69 △현정훈76
△홍성완62 △황 철71 △황대석58
△황이선63 △황일인59 △황종구56
◆농대 △공홍표78 △곽소수60
△곽영철59 △구현수67 △권오준65
△금태섭73 △김경하71 △김근영65
△김동태62 △김사일53 △김상호56
△김성린77 △김성태64 △김양재78
△김영섭65 △김영진53 △김완기65
△김윤배61 △김일중69 △김정규65
△김정목59 △김진석69 △김태수66
△김태영82 △김하두63 △김현구50
△김홍배81 △김형영74 △김훈동63
△남성우69 △목세균63 △민경택88
△민순홍74 △민욱기73 △박노환86
△박동선58 △박래경51 △박순직63
△박종주66 △박창용65 △박형만75
△배기식54 △배정길61 △부경생60
△사공문72 △서기호60 △서득성58
△서병륜69 △석준호55 △송사일80
△신해상66 △오봉국48 △오세인55
△오승관77 △왕진무60 △원종식60
△유 석59 △유문일66 △유병서59
△유성근63 △유용률66 △유원형70
△유이종71 △윤동원79 △윤재수63
△윤종철83 △윤희진63 △이건일60
△이도경56 △이동선73 △이미경74
△이병목64 △이병일57 △이봉영76
△이삼휘66 △이상걸79 △이상용61
△이석영71 △이영권80 △이영호65
△이원덕80 △이임영81 △이장섭52
△이학재83 △이현목64 △이혜근67
△이희수80 △임봉주65 △임종완70
△임형백89 △장경국65 △장승호81
△장정수64 △장봉진73 △정을규61
△정진구65 △정창주53 △조선종84
△차성윤57 △채제천64 △최찬식56
△하영주83 △한갑준52 △한정남65
△허길행65 △허현철80 △홍석현77
△홍순명68 △황무돈61
◆문리대 △강승렬62 △고 건56
△고영소56 △구태회46 △구평회47
△권병두65 △권안도71 △권오득63
△김 명67 △김건중66 △김광식59
△김규상57 △김대성61 △김덕중71
△김덕창59 △김문환64 △김병익57
△김상복57 △김선희68 △김수진57
△김영문64 △김영순71 △김영일62
△김용범60 △김용표68 △김재민67
△김종진58 △김춘석69 △김치수60
△김태수62 △김태승54 △김하석63
△김홍철60 △남영우68 △남태철65
△류종탁56 △류지웅51 △문현석66
△민영기57 △박 실58 △박건우61
△박동수46 △박무중66 △박범진60
△박영배65 △박영원74 △박용길66
△박용안57 △박의승60 △박정무59
△박하진67 △박혜란65 △방효선51
△변 형61 △성민선64 △손재국65
△손재국65 △신상우64 △안휘준61
△엄영진63 △오거돈67 △오영일61
△오원영59 △오재희53 △유재천57
△윤상철55 △윤석현46 △윤홍근63
△이경형66 △이광찬58 △이기원50
△이병기66 △이병형67 △이상무61
△이상원71 △이상직66 △이성덕56
△이성우63 △이영래60 △이용태53

△이용태63 △이원영69 △이원홍52
△이윤배67 △이인재64 △이재형65
△이정길59 △이정남51 △이제훈58
△이종명65 △이종무58 △이종한62
△이충희54 △이형구59 △이효원69
△인태오57 △임병석54 △임의신62
△임형두57 △임형택62 △임희섭55
△장영수63 △장정환56 △정 광62
△정규수63 △정명수64 △정소성64
△정목자61 △정의용64 △조완규48
△차영구73 △차재익70 △차흥봉62
△채영수68 △천상덕71 △최경락71
△최서영54 △표완수67 △하영기44
△한우석51 △허운욱57 △홍사덕61
△홍영남60 △홍종호62 △홍지모52
◆미대 △강인선73 △김 태51
△김민기69 △김연수76 △김영대67
△노숙자62 △민철홍54 △박영대87
△성기점58 △송복희74 △안종문60
△오성진83 △이영진54 △이주숙70
△전영철53 △조정송59 △최매애70
◆법대 △강 훈72 △강대석67
△강대신63 △강병섭68 △강신원72
△강영규48 △강용구52 △강용석88
△강이수58 △강태중52 △강현안74
△강호성83 △강희철81 △경우근67
△고광우53 △구충서71 △권남혁67
△권연상58 △권영상75 △권오윤56
△권은민82 △김 석72 △김갑현50
△김관재71 △김귀동70 △김기인58
△김능환71 △김덕영60 △김덕주52
△김도언58 △김동원52 △김동호56
△김두희58 △김병국66 △김병화70
△김석기64 △김선환66 △김성길60
△김승욱60 △김승진57 △김신택57
△김연근85 △김영상54 △김영우56
△김영재57 △김영태84 △김영학83
△김영훈83 △김용환60 △김용환72
△김우진83 △김윤성76 △김윤열59
△김의재56 △김이수72 △김재덕73
△김재호51 △김정후57 △김제식77
△김종일52 △김진우52 △김진우57
△김진환67 △김찬식68 △김창균57
△김창복51 △김창엽64 △김철수52
△김학의76 △김현산54 △김형선57
△김형성79 △김형수77 △김호응72
△김홍헌67 △김홍결70 △김희주84
△나대진67 △노신영50 △노태호66
△류기홍58 △명노승65 △문성우75
△문호남74 △민병국57 △민수명60
△박동섭60 △박동완64 △박만호57
△박부찬56 △박상전57 △박성귀71
△박성원81 △박순백66 △박영수52
△박영현69 △박용삼63 △박원진51
△박윤훈55 △박인수57 △박인제71
△박재권66 △박정규57 △박정수84
△박찬홍80 △박철근55 △박철언61
△박충근68 △박태훈66 △박흥우72
△박희태57 △배 도53 △배동전86
△백장수76 △변 욱57 △변동결66
△서경석67 △서규영79 △서규택55
△서돈양56 △서복현76 △서상수80
△서상희68 △서원태67 △서정석65
△서정진58 △성백현78 △성쾌문60
△송언종56 △송진훈59 △신규태56
△신기남70 △신동승79 △신성철65
△신인식74 △신장순47 △신정철52
△신창호45 △신현일77 △신호철61
△심명수63 △심상철76 △심장수70
△심태식47 △안경환66 △안성희66
△안재호87 △양승규56 △양희영52

△여상훈75 △오경락54 △오석준80
△오시열75 △오지철69 △오진환75
△유기준78 △윤경희65 △윤덕순59
△윤보옥66 △윤영철56 △윤재열50
△윤호일61 △이건개59 △이건중72
△이경우76 △이규오43 △이규용74
△이근식65 △이대경77 △이동특59
△이두용54 △이병석54 △이복영66
△이상우57 △이상환78 △이석희51
△이선우61 △이세형68 △이세훈55
△이수영74 △이여성73 △이영기71
△이영준57 △이외수63 △이원호61
△이인상60 △이인표54 △이재방78
△이재원77 △이재철70 △이재철77
△이정락58 △이종삼54 △이종순57
△이준보80 △이지희62 △이춘성74
△이충호68 △이태운68 △이태창61
△이학성77 △이현승67 △이희창53
△이효성59 △임 경78 △임규운53
△임승순73 △임종훈73 △장병규53
△장부웅59 △장세두59 △장운영85
△장윤기69 △장준철67 △장창호63
△전 광63 △전병식70 △전웅진49
△정경용65 △정구영57 △정대권75
△정덕홍68 △정문화59 △정세용74
△정연조55 △정용인60 △정은구58
△정장오74 △정정길61 △정지형58
△정한삼50 △정해주63 △정취위62
△제차룡60 △조상흠67 △조용경70
△조중환65 △조해근78 △조현우68
△주진학54 △지성우66 △지홍원58
△차수명58 △채 윤78 △채동욱77
△천인수59 △최광률54 △최근선54
△최기정60 △최병구67 △최상엽56
△최석원52 △최신석59 △최연희64
△최영도57 △최재경81 △최재훈49
△최희준54 △한 민77 △한경국57
△한덕수55 △한부환66 △한승희55
△한원규79 △한병무52 △한재현67
△홍경식70 △홍경용49 △홍세철80
△홍진태52 △황병인54 △황보경석50
△황보중74 △황영규75 △황영선55
△황의만70 △황의인74 △황이연55
△황창섭53 △황희철77
◆사대 △강경돈70 △강봉근67
△강철용69 △고영기72 △고영신73
△곽학기71 △구영주72 △국해웅63
△권재술66 △기진오67 △김경수60
△김기광64 △김남조47 △김병무64
△김봉근60 △김상구60 △김서령78
△김성대59 △김세철73 △김수형61
△김영삼73 △김영애64 △김영진51
△김용균65 △김재호53 △김종원61
△김종필46 △김진영65 △김충언58
△김태완67 △김학희73 △김학원65
△김희수70 △나병삼64 △노갑기66
△노정학73 △류근찬68 △민경현53
△민흥기59 △박강문63 △박병기81
△박봉상59 △박영민62 △박영배65
△박익두64 △박임수71 △박종달49
△박지모77 △박찬구56 △박형준64
△박효석70 △박흥일60 △방재욱68
△변재익65 △서정선60 △성 현69
△소현영70 △송호열79 △신동철59
△신인식73 △신하영58 △안승룡75
△안지원81 △안창섭61 △양남식73
△오윤용60 △왕문용66 △우근용65
△유덕준60 △유영재70 △윤규태65
△윤웅섭61 △윤익모62 △윤재복56
△윤재석71 △이기영68 △이기준67
△이동식72 △이동호59 △이민자59

△이범국55 △이병호70 △이복환70
△이상권80 △이상락67 △이상요74
△이선준48 △이성목67 △이순권61
△이안기71 △이원강57 △이원순45
△이원호68 △이재인82 △이정식72
△이종승65 △이주환53 △이준동60
△이환기81 △이환희54 △이희호46
△임광수68 △임창선72 △임창원66
△임향순60 △전성택54 △전용근73
△전의숙68 △정광삼58 △정귀생58
△정기언72 △정동훈74 △정상윤74
△정원식48 △정응근63 △정주섭52
△정준섭61 △정희성82 △주기성72
△최기숙65 △최돈형68 △최동환72
△최병주56 △최병환70 △최상훈76
△최성재85 △최영삼56 △최은규78
△최희유68 △추인호71 △표진이66
△하상기74 △한기선71 △한도연49
△함오연67 △홍철근70 △황성욱68
△황승기69
◆상대 △강승구65 △강원구54
△강인식65 △계준혁48 △고두모57
△곽윤광60 △구선화56 △구영보69
△구정화57 △권영식66 △권오규71
△권혁성53 △기병태53 △김국주64
△김기중57 △김뇌명63 △김대중66
△김덕기52 △김덕명60 △김만경53
△김만우67 △김석규53 △김성규57
△김연배64 △김영식66 △김영환54
△김용균65 △김원길61 △김정우65
△김종국55 △김중석65 △김창수68
△김창진58 △김철영70 △김형만52
△김호식71 △나진원67 △남상덕69
△남영태65 △노인환54 △문영도50
△민경재50 △민형동71 △박 간68
△박수환55 △박순일69 △박영조61
△박태일60 △박태하58 △박태룡58
△배경일69 △배정운59 △백장기61
△사공일58 △서승원63 △선종승71
△손상모53 △손석주46 △송국현56
△송병락59 △송인덕62 △신세길57
△신승철59 △신평재57 △심재석64
△심정구53 △양승우68 △어 준57
△엄수명61 △우두현61 △우완식57
△유석홍61 △윤영석58 △윤용석58
△윤우진61 △이관규61 △이광수50
△이구수57 △이국희56 △이근재48
△이동혁65 △이상근53 △이상락64
△이세근63 △이승웅60 △이영서61
△이영선66 △이일훈55 △이재규65
△이재욱65 △이준용56 △이진민70
△이철희57 △이태형59 △이한희54
△이항철54 △이현락62 △이호유54
△임종두61 △장덕신71 △장민화56
△장명섭49 △장무환45 △장윤문65
△장종록57 △전문준64 △전창수57
△정병호53 △정상근68 △정수웅60
△정재택58 △정주호65 △정태욱62
△정태웅67 △정형배64 △제만수61
△조덕찬53 △조영삼71 △조원구64
△조중현62 △조창제57 △진영욱70
△차태근71 △최경식59 △최남식59
△최동건70 △최명규46 △최명해68
△최부완54 △최수일55 △최종민61
△최행주66 △최현기68 △표계영58
△한도형69 △홍면후46 △황규백63
△황동규63
◆생활대 △고영숙70 △김정숙69
△김혜경76 △문영실81 △박복순70
△박성희73 △서선주81 △이미숙74
△정태숙80 △정해자61 △정현희72

◆수의대 △김계방61 △김상돈44
△김성수64 △김오섭66 △김용팔75
△김윤수74 △김창수64 △김택수55
△니종극54 △문 웅64 △박성권74
△박영찬81 △방극승64 △배상호64
△백오섭58 △신도균81 △엄영호77
△오효성77 △윤희중54 △이강남66
△이도필49 △이재철52 △장치훈70
△정홍보75 △조휴익59 △주현식73
△지차호70 △최병일59 △최수호75
△한정희79
◆약대 △강석진55 △공영석57
△권경근56 △김규호64 △김길수60
△김명수71 △김상수66 △김상조54
△김선중61 △김수경57 △김순화73
△김영택61 △김우영67 △김장호65
△김재환68 △김충경65 △김효중71
△나도선67 △남기동64 △박승규59
△박시우69 △박종길71 △박종훈47
△배영일60 △손인자69 △송창진54
△신현학56 △신현학56 △신화범50
△신화용46 △양현하66 △오유경82
△우중근61 △원희목73 △유 연70
△유태숙72 △윤도중58 △윤웅찬68
△이가평60 △이규호60 △이도경83
△이민화55 △이우영71 △임경택52
△임삼웅60 △임종석78 △장석윤79
△정미화59 △정순간58 △정현경83
△조영준69 △조용현74 △조우열65
△조정식62 △지현석56 △진 강56
△최근욱74 △최명식64 △최선식64
△최종수82 △최진근77 △한규흥64
△한정연85 △홍기정59
◆음대 △강덕원69 △강대환89
△강재미84 △강형섭72 △민미란73
△민희경77 △손국임64 △신상호74
△신정혜77 △심선화72 △유신선79
△윤이나86 △이경숙50 △이명희68
△이선이84 △이오규70 △이유희68
△이재숙59 △이창수67 △장재흥57
△전민숙66 △정복주66 △조창연66
△차정현67
◆의대 △강일태74 △강형룡44
△고건성67 △고원순68 △고행일64
△김근식53 △김광희55 △김귀윤66
△김규한76 △김동수83 △김동은52
△김명주56 △김명호68 △김병국64
△김병찬53 △김병천65 △김상은77
△김세경39 △김승욱50 △김영근43
△김은경90 △김응중78 △김재면74
△김재윤79 △김종숙77 △김종환50
△김진조45 △김진호75 △김찬영46
△김태규76 △김현우64 △김환규78
△노상권81 △노총희70 △동영송49
△류지근85 △맹국영68 △목정은60
△문성무60 △문태준44 △박경덕80
△박경환71 △박동현70 △박문갑46
△박성숙65 △박성태58 △박세용76
△박소배72 △박양희70 △박영수59
△박영태70 △박용재65 △박이태72
△박주배68 △박종학71 △박호진72
△박효일58 △방성호66 △백낙환44
△백대진74 △선덕영49 △선우대환71
△손기섭51 △손봉기73 △송희승53
△신기철75 △심달섭45 △심영보55
△심용석59 △양승렬51 △오경근67
△오승환56 △우제훈61 △유경상64
△유세화65 △유재란84 △유태연54
△윤세희68 △이건용69 △이계평59
△이관희75 △이대규53 △이동철77
△이병훈60 △이부영52 △이성규72

△이수일69 △이수철71 △이순형56
△이승규67 △이시영82 △이의용72
△이재경84 △이종호81 △이진용59
△임승운74 △장돈식56 △장성근71
△장성근71 △전성환74 △전형식81
△정동철54 △정명관91 △정영덕70
△정운재75 △정필현82 △조강희59
△조경환52 △조영희56 △조종태78
△주근원43 △지삼봉55 △차인식72
△최 윤76 △최경진68 △최규완55
△최동수54 △최복식84 △최세준53
△최영길63 △최정연68 △최진수64
△최훈동72 △추광철60 △하재동51
△하재인44 △한규섭72 △한달선58
△한두진50 △한병재58 △허봉열60
△허준평70 △홍성환76 △홍순우85
△홍영수66 △홍영식61 △황정운54
◆치대 △강대준62 △곽현희68
△구창서58 △김 일51 △김 현67
△김경애57 △김규진64 △김기국64
△김기현56 △김성룡58 △김윤영58
△김정자59 △김종우71 △김종철71
△김종훈73 △김지호59 △김채종68
△김충배72 △김태의60 △김한경63
△김현풍60 △김홍석57 △문복각62
△민병희74 △박기성55 △박영길64
△박종욱92 △박찬우65 △박행운56
△방수남62 △백성기71 △변기정65
△부삼환58 △서영수67 △성훈경59
△손 근71 △송명국86 △송영호57
△송학선70 △신일규65 △안효일58
△양수정83 △양희일56 △유병도56
△유태영63 △이병우76 △이복상81
△이수구66 △이시우59 △이영욱76
△이용오56 △이용오62 △이원재72
△이윤상59 △이재윤76 △이종혁74
△이종호79 △이준규66 △이진결77
△이진규78 △이진근63 △이창우75
△이하진89 △이한무65 △임성수60
△임순모70 △임종호82 △장상현59
△전태수56 △정건웅52 △정광현58
△정재영70 △정종선57 △정표진81
△정형남62 △조성복55 △조항자64
△주낙남56 △주미희82 △진운수80
△전옥진80 △최성근65 △최순철73
△한수엽80 △허노정67 △허연욱55
△허준구66 △홍성호60 △황희강61
△황치일77
◆대학원 △구경모77 △김문한79
△김석웅81 △김세재85 △김준호86
△남선현77 △배명진83 △신동수92
△신호수85 △윤옥경75 △이광재78
△이충우84 △임병빈82 △임유택87
△전용기82 △정우남81 △최원희81
◆경대원 △김윤택68 △박원봉68
△양승현71 △양희석86 △유장규67
△장몽인66 △조현국73 △한기룡71
◆교대원 △장성민70
◆보대원 △김병환65 △문인홍81
△박순영63 △박원길65 △박일영79
△박종안72 △윤용길70 △윤철중87
△이규한63 △이형구91 △조경종68
◆사대원 △석용진65 △송정호66
△이근웅70 △이원성67 △이원형64
△정경식63
◆신대원 △김우룡71 △김태문71
△유일상72 △이근수67
◆행대원 △강계두84 △고충삼63
△권기성77 △김상돈79 △김상영65
△김익영68 △김인동65 △남상우73
△문희갑66 △배문환63 △신순우74

△양석호⁶⁷ △유금록⁸⁰ △윤 영⁸⁴
△이영태⁷² △장준규⁶⁵ △정여철⁷⁴
△정영섭⁶⁶ △허남식⁷⁸ △현경병⁸⁵
◆현대원 △권 완⁷⁶ △김경윤⁷⁹
△김수철⁷⁶ △박경자⁷⁶ △박상락⁸⁴
△박형석⁷⁴ △윤용희⁸¹ △이재근⁷⁹
△이평재⁷³ △임동환⁸⁵ △정양희⁷⁹
△조남건⁸¹ △황학래⁷⁴
◆AMP △강봉희³⁶ △권기술⁹
△권오석⁶¹ △권오영⁶⁴ △김기용²⁸
△김득식⁵⁷ △김영환³⁴ △김을재⁴⁵
△김익현⁵² △김홍덕⁵⁴ △남중철⁴⁸
△박상규³¹ △박수웅³⁹ △서석해⁴⁰
△성영창²⁶ △성환목¹⁸ △손창수⁴¹
△송언기²⁸ △송원중⁶³ △신희철⁵⁷
△오병제²¹ △유시수²⁵ △육신학⁵⁷
△이경일⁶¹ △이규철⁴⁴ △이근호⁵²
△이대영⁶⁷ △이웅표³⁶ △이재형⁵⁹
△이현구⁵² △장영준⁶² △장희수⁴⁵
△전용배⁵⁷ △전현찬⁴⁴ △정남연²¹
△정명섭⁴⁹ △정연근⁵⁸ △정영대⁴⁸
△정환진⁴⁷ △조법선⁵³ △조시연⁵⁷
△치문현⁶⁷ △최영보⁵⁵ △최호경²⁸
△히정길⁶ △홍완기²⁷
◆AIP △강명영²⁰ △권영렬¹⁹
△김성길⁷ △김수영¹² △김승겸¹⁶
△김완희³⁴ △김용태³⁰ △김윤종³¹
△박만홍³⁸ △박몽식¹⁶ △박양신²⁰
△박영식²⁸ △박용진³⁵ △안정환¹¹
△양 명⁹ △여운창³² △예상호⁸
△우영식²⁸ △윤한동²⁴ △이덕영²³
△이석준²⁷ △이성남²⁹ △이의현²⁰
△이창규¹¹ △정두영³² △정희용²⁷
△조규승²⁰ △조성환²¹ △조흥구¹⁸
△최진용²⁹ △추현식³² △한승욱²⁷
◆ACAD △가겸노³⁹ △권상문⁴⁵
△권영호⁶⁰ △권태석⁶⁰ △김광철⁴⁷
△김성은³⁰ △김우연¹⁴ △김종웅³⁹
△김창식⁴⁵ △김창환²⁷ △김태완⁴⁴
△박 현⁵⁵ △배윤도⁵⁴ △송봉식⁵²
△오종태³⁸ △이강국⁶³ △이관범²⁰
△이달화²⁴ △이상영⁴⁰ △이승재⁵³
△이왕열³³ △이재복²¹ △이진영⁵⁶
△이희수⁴⁹ △정송학⁵⁴ △조건창⁴⁹
△조광제⁶¹ △조주태¹⁴ △진강현²⁰
△최종욱²⁰
◆ABP △고경일¹¹ △김성일¹⁵

△이 명⁸ △이계용² △이충원¹⁷
△이관철³ △조도천²⁵
◆SGS △김광두³ △김덕우⁹
△김승규⁷ △김영구³ △김종호⁴
△남궁락¹⁷ △노영일¹¹ △박종영¹⁰
△손성오¹² △안기석¹⁰ △오원석²
△이계식²⁰ △이창섭⁷ △최정희²²
△황용연²
◆APC △김두완⁵ △김복승³
△김종현⁷ △서정원⁹ △이용배⁵
△장신현³ △함춘조²
◆HPM △권영욱¹¹ △김 웅⁶
△김광화⁹ △김운하⁵ △김재영¹⁸
△김정자²⁰ △노동일⁷ △류희근⁴
△박전표¹¹ △방금석² △서관석²
△송정순³ △안호원⁶ △엄신흠¹⁴
△오국진⁵ △윤귀남⁵ △이정희¹²
△이철희⁴ △장성호⁶ △최병용⁹
△최선희¹⁷ △홍성희³
◆AMPP △김종민⁴ △류귀식⁷
△이귀복⁵ △이인곤²
◆AIC △김정구³ △김현식²
△박종렬³ △송호룡¹⁹ △유명환⁸
△이강록¹³ △이경호⁷ △이인기¹¹
△이일로¹ △조정구⁸ △최유섭¹¹
◆AFB △김규태¹ △김정민²
△이동락¹ △장재승⁴ △정성모³
△정호민⁷ △홍완표⁸
◆AMPFRI △김명중¹⁶ △김정훈¹
△김종은¹⁹ △김태형²³ △양준호¹⁴
△윤환식⁴ △이오훈²³
◆ACMPM △김정식³ △이영수³
△이종수¹ △정광식² △정연문⁴
△정원배³
◆FIP △문재웅⁵ △안성훈¹
△양태운⁴ △최승래⁶ △황귀봉¹
◆GLP △김경식² △김자빈¹¹
△노윤호¹² △손영수³ △신극정¹⁶
△안재화¹⁰ △유상열⁶ △윤석호⁷
△이승구¹⁵ △이원욱¹¹ △이흥순¹²
△조좌진¹⁷
◆ALP △박영선⁹
◆SPARC △강정용¹¹ △김백형¹³
△김유정¹⁵ △김윤창¹¹ △노창호¹⁰
△민병찬¹⁴ △박병곤¹¹ △박현우¹⁴
△손정우¹⁵ △심재성¹² △유승만³
△이수원¹⁵ △이승련¹⁴ △이의시⁹

△이태식¹² △임장주¹¹ △전용갑¹⁴
△조성원¹⁰ △조용권¹ △조혜자¹³
△흥기남⁵ △황대야⁸ △황용규¹⁵
◆ASP △김성보¹¹ △박창호¹
△장기원⁵

일 반

◆인문대 △김대환⁸⁴ △김민호⁰⁰
△김영민⁹⁶ △김영홍⁷⁴ △김정호⁹⁰
△남상백⁹⁶ △박명식⁷⁷ △박춘영⁸²
△오희은⁰⁵ △이언주⁹¹ △정인호⁸⁶
△정혜경⁸³ △조용일⁷⁷ △팽철호⁸⁰
△허 선⁰⁵ △허유진⁰¹
◆사회대 △곽대환⁸¹ △권용신⁸⁶
△권태훈⁸⁷ △김동섭⁸¹ △김연광⁸⁰
△김영만⁸⁴ △김준영⁰³ △김혁래⁹⁸
△김형일⁸³ △민성원⁸⁴ △박다혜⁰⁴
△박병욱⁹⁷ △박정언⁰⁵ △박지우⁰¹
△박찬호⁷⁹ △박현규⁰⁴ △박현재⁰³
△변동희⁷³ △손영수⁸⁷ △안상환⁷⁷
△위성일⁸⁵ △유대준⁰⁰ △이광오⁷³
△이동환⁸⁴ △이성훈⁰⁴ △이은아⁹²
△이재덕⁷³ △이주현⁰⁸ △이중교⁸⁶
△이찬복⁹⁸ △이한규⁹² △임이랑⁰⁴
△정규억⁷³ △정기철⁷³ △정우진⁹⁵
△정우흔⁸⁴ △조동호⁹² △최영환⁸⁴
△최유빈⁰⁵ △최형근⁷⁵
◆자연대 △구형모⁸⁸ △김계운⁸⁶
△김영찬⁰⁶ △김영찬⁰⁶ △김재우⁶⁹
△김진복⁷⁸ △김효중⁸⁴ △노경진⁰⁶
△박지용⁸⁹ △반병준⁹⁶ △서재현⁰¹
△손승민⁰⁸ △오인록⁰⁶ △이미선⁰⁸
△이승민⁰⁵ △이승엽⁰² △이승환⁸⁹
△이용희⁸⁴ △이은진⁰⁸ △이은혜⁰⁵
△이준현⁰³ △이창규⁹¹ △임완중⁸⁷
△전동오⁸⁴ △정민선⁰⁴ △조경덕⁰⁶
△조병찬⁸³ △조유희⁸⁸ △조정구⁰⁸
△최승주⁷² △최영준⁸⁵ △황동규⁸⁴
◆간호대 △권오겸⁵⁶ △김선영⁷⁶
△도혜경⁸⁵ △박현자⁶³ △오현숙⁸³
△이인옥⁷⁴ △이지숙⁷⁶ △임미현⁰³
△채영순⁷⁰ △최경숙⁷⁰
◆경영대 △강민선⁸³ △권영주⁰⁶
△김기영⁷² △김남식⁸⁴ △김두봉⁸⁶
△김민수⁰³ △김종훈⁸⁶ △김태암⁸²
△김태현⁰⁶ △김혜민⁰¹ △박봉호⁰⁴

△박종완⁷¹ △서정호⁸⁸ △송준관⁹⁷
△신석영⁹⁵ △안재석⁸⁷ △안철환⁸⁸
△오행연⁰⁴ △전용주⁸⁶ △조일환⁰³
△천정일⁰³ △최신석⁹⁸ △최진원⁸²
△홍득관⁹⁵
◆공대 △강은구⁹⁷ △강해성⁰³
△고근희⁵⁴ △고윤기⁰⁴ △고윤석⁶⁴
△고형석⁸⁵ △곽희로⁶¹ △구본현⁷³
△구자호⁰⁰ △권경준⁹⁵ △권숙문⁵²
△권오동⁶⁹ △김계전⁵³ △김근환⁸⁶
△김기영⁰⁶ △김기준⁵⁷ △김기준⁸⁹
△김기풍⁵⁰ △김방식⁴⁹ △김병숙⁵²
△김병제⁵² △김병호⁷⁸ △김상원⁹⁴
△김생빈⁵⁴ △김성철⁸⁸ △김성희⁸⁰
△김수환⁶⁹ △김신태⁶³ △김언기⁰⁵
△김영신⁸⁹ △김용태⁵³ △김우진⁰⁵
△김유희⁵⁷ △김재경⁹⁷ △김정래⁰¹
△김정현⁰⁵ △김주호⁵² △김진욱⁹⁹
△김형주⁰⁴ △노성준⁰⁶ △류지현⁹²
△문 광⁷⁰ △문석훈⁰² △박기병⁷⁴
△박대동⁰⁴ △박명규⁶³ △박명준⁵³
△박상서⁸³ △박성수⁷² △박영진⁷¹
△박재서⁶⁵ △박전경⁵² △박희렬⁵⁸
△방현규⁶⁸ △백용현⁴⁸ △변문현⁵³
△변정근⁵² △서동식⁸¹ △서두원⁰⁶
△서정욱⁵³ △손지호⁰² △손태희⁹⁹
△송기선⁰³ △송대석⁰⁶ △송미화⁰²
△송완근⁵³ △송재규⁵⁵ △송철상⁶¹
△송판상⁴⁹ △송현수⁰⁶ △송희국⁵⁵
△신동엽⁰⁰ △신재철⁶⁶ △신현식⁵⁰
△심정원⁹⁹ △안상식⁸² △안재식⁰³
△안정기⁰³ △안창범⁷⁹ △안태영⁰³
△안호열⁴⁹ △양달수⁷⁹ △양우현⁷⁸
△양창국⁶⁰ △염다일⁹⁸ △염규섭⁵⁶
△오세현⁵⁹ △원종석⁰⁴ △유승규⁷⁶
△유환규⁵⁶ △윤석용⁵⁰ △윤형돈⁹⁴
△이 석⁴⁷ △이경선⁰³ △이경하⁶⁶
△이경환⁶³ △이경훈⁶¹ △이경훈⁹⁹
△이기자⁹³ △이동규⁰⁸ △이동선⁶¹
△이병무⁶¹ △이분수⁶⁴ △이석재⁶⁸
△이성훈⁸⁵ △이세용⁸² △이수목⁷⁶
△이승무⁶¹ △이승우⁰⁵ △이시우⁸⁵
△이영우⁵⁸ △이용훈⁴⁹ △이재범⁰¹
△이종윤⁰³ △이창환⁸⁰ △이현진⁰⁶
△이희발⁷² △임용규⁵² △장동근⁵⁵
△장봉진⁵³ △장재명⁰⁰ △장지현⁰⁶
△장희익⁶⁸ △전지훈⁰¹ △전춘석⁷⁷

△정동식⁷² △정상구⁷³ △정석현⁵¹
△정용근⁸⁵ △정우석⁹⁸ △정재현⁰²
△정재호⁸⁸ △정종호⁰¹ △정진삼⁶⁵
△정치권⁶⁰ △조기연⁰¹ △조남산⁶³
△조득호⁶⁶ △조선용⁴⁹ △주병국⁹⁸
△주익철⁸⁹ △진형구⁶³ △채희선⁶⁹
△최광택⁰⁸ △최길영⁷¹ △최석주⁵¹
△최정근⁶⁵ △최정립⁵³ △하정식⁰⁴
△하태광⁸⁴ △한광흠⁸¹ △한민우⁸¹
△한영수⁶⁵ △한진석⁰⁶ △현봉섭⁴⁹
△홍종우⁵³ △홍헌성⁷² △황정수⁶²
△황준식⁰³ △황청정⁵⁹
◆농대 △고영근⁷⁸ △공재환⁶⁸
△권대걸⁵⁷ △김규식⁶⁸ △김명관⁸¹
△김명동⁹⁰ △김무수⁸⁹ △김병주⁸¹
△김신희⁷⁰ △김영각⁴⁹ △김영욱⁶³
△김재우⁶⁹ △김재인⁶² △김정특⁷⁶
△김종성⁵⁵ △김학면⁶⁴ △김한태⁸³
△김형우⁰⁴ △나병용⁶⁹ △남영우⁵³
△명을재⁸³ △문서상⁹¹ △박상홍⁵⁵
△박원규⁸⁹ △박정근⁶³ △박종문⁶⁴
△박종효⁵⁸ △박진화⁵⁷ △박진환⁴⁸
△박창용⁵⁵ △박한수⁸² △백성규⁰²
△백영빈⁵⁸ △서성원⁹³ △서정연⁸²
△손광훈⁶² △손병구⁶³ △송 흡⁰³
△신민식⁵⁷ △신민종⁷⁹ △신정재⁵⁹
△연장식⁸⁴ △염태영⁸⁰ △유병두⁷³
△유영준⁵⁹ △윤득노⁰⁴ △윤석용⁷⁴
△윤태섭⁷⁸ △이계진⁵⁶ △이광희⁸⁴
△이나리⁹⁸ △이대직⁴⁸ △이무영⁸⁰
△이우중⁸¹ △이윤환⁶⁰ △이을룡⁵³
△인치웅⁵⁴ △장성중⁵⁸ △장우상⁶³
△전우방⁵⁵ △전재성⁷² △전현기⁶⁴
△정선자⁶² △정진석⁶² △조규환⁶³
△전정하⁵⁴ △최선태⁵⁹ △최영일⁴⁶
△최용현⁸⁰ △최진협⁵⁴ △한기학⁵²
△함태홍⁷⁰ △홍철선⁵⁸ △황우익⁵⁴
△황재순⁷⁰
◆문리대 △강영원⁷⁰ △고인석⁵⁶
△구본룡⁶⁹ △구춘옥⁵⁸ △김기근⁶⁹
△김기동⁶⁵ △김상욱⁶⁸ △김용달⁵⁷
△김주만⁷² △김지영⁶⁴ △김태동⁶²
△김한도⁵⁹ △남대극⁶³ △박정삼⁶³
△박종규⁶⁹ △박홍서⁶¹ △배우근⁵⁹
△백병기⁶⁰ △변재동⁵⁶ △서병현⁵³
△서세창⁵³ △성명제⁵⁴ △손장순⁵⁴
△송병찬⁵⁹ △신창우⁵⁰ △신충균⁵¹

△안광식49 △우종택54 △원이숙54
△원인기66 △유춘재61 △윤병석52
△윤홍로60 △이 윤61 △이계원59
△이광수54 △이규증55 △이상근55
△이상택61 △이승훈65 △이양길60
△이우석53 △이주형65 △이창훈47
△이평우48 △전부관66 △정 탁59
△정의성57 △정춘영50 △조규광48
△조상수61 △조원홍71 △전병희56
△최경수69 △최도희56 △최흥근70
△한철순58
◆미대 △김미혜78 △김민정01
△김상진00 △김학두51 △박석환53
△박윤정06 △우상호89 △정선화56
△조용숙61 △황인혜65
◆법대 △강 건96 △구남수81
△김 훈85 △김기남02 △김남수64
△김병중85 △김범수82 △김성룡60
△김세돈72 △김소연01 △김영기66
△김영석86 △김용덕76 △김물섭56
△김재규49 △김재수59 △김주원82
△김준영99 △김학수65 △김현영63
△김황식67 △박병연67 △박승준80
△박우순58 △박종순54 △서광하56
△석광세59 △송세빈81 △송재양77
△송재현60 △심연택71 △안길용65
△안창수52 △안철환57 △오정면86
△오형환65 △오홍주70 △유해돈55
△윤덕규57 △이명순85 △이미희00
△이상국90 △이재덕82 △이정민88
△이종문56 △이체주53 △이학무55
△이희정94 △임도빈65 △임상현59
△임영환86 △임준호77 △전창영74
△정덕모75 △정재일52 △조경래51
△조남현54 △조병직46 △조용원98
△조주현95 △조현수78 △지원훈61
△채승우88 △최귀인56 △최석정61
△최영홍72 △최정은04 △형대우62
△황경진52 △황성일56 △황영옥59
△황철규83 △황활웅67
◆사대 △강길선57 △구수연87
△권광옥54 △권오현71 △길윤상99
△김 탁52 △김관섭79 △김기련02
△김동근01 △김리경08 △김문수71
△김성곤49 △김신복64 △김재혁50
△김정웅65 △김태영60 △김효정05
△노재현77 △문제세71 △박경은67

△박광국82 △박노학50 △박동근62
△박문수74 △박상근52 △박상옥02
△박영배54 △박영자46 △백기현03
△서아영05 △송재식49 △신각범54
△신동진03 △안예라02 △양기대81
△어 영51 △오건오81 △오성종66
△유석렬58 △유승연73 △이병순67
△이상경65 △이상규79 △이성구64
△이성진53 △이성호58 △이수창03
△이승우62 △이시정54 △이재근86
△이종철75 △이창국60 △장혜정01
△전호재04 △정두영60 △정복래54
△정복임60 △정봉채58 △정수만71
△조도근57 △조민식55 △진명희78
△차은진05 △최기현06 △허현도52
◆상대 △강정규61 △권태명58
△김기휘66 △김대식70 △김덕윤65
△김동휘48 △김병식68 △김상렬64
△김선정54 △김용민70 △김윤희67
△김이규50 △김재진54 △박광규56
△박종환49 △배명호58 △변원옥49
△변형윤45 △설동욱62 △성락후63
△송재관66 △양재국50 △오상봉70
△유수길60 △유희선65 △윤록현59
△이규환55 △이기철55 △이동수59
△이동재54 △이영세44 △이영탁65
△이영호46 △이용기57 △이종렬49
△이태중50 △장사일73 △전장원56
△최익재68 △최철현53 △표학길66
◆생활대 △김남미73 △김지현04
△류국영84 △백효성02 △이재우76
△이정호98 △정선영06 △조정자61
◆수의대 △김만영50 △김영목51
△김영무60 △김종면52 △김준삼55
△박선규60 △방효범55 △서세일76
△우영제64 △이중희49 △조광영54
△조충호49
◆약대 △김계영51 △김상범08
△김재현06 △김종윤53 △김홍숙73
△박성원93 △박영선50 △박윤주84
△박천형06 △성태현70 △소병규05
△우제안57 △이강영57 △이상구58
△이진규79 △이형연77 △정연심54
△정진남60 △정철영65 △최기철53
△허 백50
◆음대 △김기홍80 △김수연94
△김유경05 △김윤지05 △김정휘05

△김태정86 △김한식68 △김홍박00
△나석주00 △박수전71 △박효경65
△서은령80 △송복자84 △엄태현04
△윤명순79 △윤완숙62 △이강은02
△이상수01 △이정현97 △이준성81
△장수영03 △정혜경01 △최영택74
△황수아98
◆의대 △고성민00 △곽계혁96
△권영길47 △길민석84 △김선민00
△김수경81 △김용식71 △김창범70
△김형규55 △김혜림06 △류인근82
△박영희44 △박중원77 △백낙형54
△백성현56 △백운집71 △설보람06
△송민준57 △신정영06 △심태섭56
△양대현70 △유안호54 △이근후77
△이상준60 △이원기56 △이의돈61
△이정하02 △이철현67 △임한중51
△장수진06 △장학진64 △장호조61
△전동수44 △정재욱02 △정진영05
△최덕영58 △최동호81 △최현규52
△허 훈46
◆치대 △강민선67 △권순모06
△김광주67 △김기홍75 △김정균59
△김평일72 △김현제87 △김효순68
△나병선69 △성영환59 △안성모68
△오안민60 △유병현07 △유세정51
△이병윤53 △이성근70 △이성출70
△이영훈78 △이재신73 △정형태74
△정호길71 △조영호65 △최남섭73
△한영복58 △황성림86
◆대학원 △가순일94 △김진우86
△모수미75 △민경부84 △변종영71
△손상익85 △송윤경96 △신용목82
△윤경섭89 △이건수89 △이용범82
△조석준57 △최양석04 △최천석77
△허찬수72 △황철용96
◆경대원 △박영휘90 △유민철71
△이범신69
◆교대원 △우정남73 △정월용73
◆보대원 △이경연71 △이용성73
△이현영03 △조순섭99
◆신대원 △김해성71
◆행대원 △김용국74 △김재윤83
△김정중94 △김종성81 △박완신77
△송하진81 △이경훈76 △이기섭77
△이석암78 △이종련68 △임종섭77
◆환대원 △박유경90 △신언교87

△이정택02 △최길대82 △허 완74
◆AMP △고종근65 △곽덕근54
△곽병구17 △금한태68 △김기석64
△김동구35 △김동열40 △김상규62
△김선동28 △김영재36 △김종대59
△김종철68 △김홍두53 △남재호63
△남현일32 △노용환68 △노재근42
△박도봉68 △박유덕67 △박종덕64
△박찬엽40 △박학경47 △서재희25
△서철봉33 △성백진36 △손병준68
△송문호38 △신명철8 △신사현67
△신영주42 △신용무26 △심재설68
△우상우18 △우태명5 △유병운23
△유시종19 △유재열35 △유종석57
△유진석32 △윤태하34 △이성길34
△이영희30 △이현섭22 △이휴원68
△장경남46 △장남진48 △장명웅40
△전후근68 △정동락52 △정원민13
△정하덕23 △조두희29 △조승조68
△최기희68 △최세필54 △한상범68
△허 승50 △허일희68 △홍경선52
△홍승표68
◆AIP △곽상욱30 △김상진31
△김재욱42 △김정원18 △김종필40
△남귀현3 △문일권39 △박상수42
△박임숙42 △박철환42 △백승호38
△송하영42 △신용기9 △원석동19
△이강원33 △이은택6 △이종진28
△이창범22 △정일균41 △최종전15
△황한구42
◆ACAD △강성수69 △김성정49
△김영광10 △김현수30 △노재우16
△문동신55 △박해성69 △서정도35
△서정만18 △성기태59 △송근호33
△유재면69 △윤춘근13 △이관영2
△이교용40 △이근일40 △이덕수44
△임종국69 △조부영12 △채항석10
△최상철36 △최수근51 △한경노69
◆ABP △강구현35 △신강수32
△안재성28 △양종하19 △정환수15
△조남준35
◆SGS △강중원20 △경민호24
△김동호24 △김용환16 △민상금1
△박정호5 △손옥래24 △윤진환24
△조승호23 △황정식2
◆CHCN △문순자11 △조순옥10
◆APC △전관석1

◆HPM △김남수14 △김종대16
△김홍구12 △변 옥22 △양동근12
△엄금량14 △이상완11
◆AMPP △김상욱7
◆AIC △공봉석28 △구관서28
△김병수28 △김형준24 △박승춘15
△서민웅7 △오용운9 △이덕우23
△이상용28 △이용안28 △이종대18
△조익현22 △주승철28 △허 인25
◆AFB △김용식7 △문정욱9
△박문희9 △장세영8 △최동기9
△최재영9
◆AMPFRI △강정목9 △김경훈20
△김상진6 △김원규26 △박수찬25
△유재만2 △임한택6 △장기봉26
△조기조4 △조봉기1 △주영주26
◆ACMP △김대용2 △류근욱6
△박흥석6 △윤상담6 △최재영2
△한상욱5
◆FIP △고영수2 △권현화6
△이선진6
◆GLP △김성오21 △김인식20
△대철인홍16 △류언근20 △손인근20
△신현운21 △양승인21 △연건희4
△이성리9 △이재환21 △이종신20
△정인태11 △조기동17 △조호현14
△차기민16 △최병오21
◆ALP △강재만8 △김 호11
△김영배2 △김홍주4 △이승림11
△이영근10 △이영남11 △임대진5
◆ANMP △윤문숙5
◆SPARC △구제병16 △김병만2
△오준서4 △장 웅16
◆AFP △김준환4 △이수형4
△조원국5
◆ASP △손경석18 △유배근6
△이재원13 △이한응18 △장덕생18
△채수철15

8 월 계 :	46,520,000원
평생회비 :	58,730,000원
입 회 비 :	1,160,000원
총 계 :	968,185,650원